

[1~2] 합성어는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1)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 (2) 늦더위, 높푸르다, 부슬비

먼저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1)의 '산나물'은 '명사+명사', '작은집'은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들어가다'는 '용언의 연결형+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은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으로 이런 구성을 가진 합성어들을 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그러나 '늦더위'는 '용언의 어간+명사', '높푸르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부슬비'는 '불규칙 어근+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용언의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나 용언에 연결되는 '용언의 어간+명사'나 '용언의 어간+용언'은 국어의 문장 구성에는 없는 단어 배열법이다. 또한 '불규칙 어근+명사'와 같은 구성도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2)와 같은 단어들은 비통사적 합성어라 부른다.

- (3) 비빔밥, 할미꽃 (4) 강산, 마소 (5) 갈등, 세월

또한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3)의 '비빔밥', '할미꽃'의 경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 한다. 이에 비해 (4)의 '강산', '마소'는 두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지닌 합성어를 대등 합성어라 한다. 또한 종속 합성어, 대등 합성어 이외에 (5)의 '갈등(갈+등)', '세월(해+달)'과 같이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융합 합성어라 한다.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

1.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시오.

보기
• 앞뒤 : 명사 + 명사 • 돌아오다 : 용언의 연결형 + 용언

- (1) 접칼 : () + ()
(2) 오르내리다 : () + ()

[Blank box for answer]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 단어의 배열법과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어를 하위분류할 때, '나무망치'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Blank box for answer]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 <보기>의 뒷부분에 덧붙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의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
한글의 자음은 해당 글자를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들을 만들고, 그 글자들에 획을 더하거나 글자들을 합쳐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다음의 글자들이 그 예에 해당한다.
• 기본 글자 : ㄱ, ㄴ, ㄷ, ㄱ, ㅇ
•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 : ㅋ, ㆁ, ㆁ, ㆁ, ㆁ 등
•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 : ㄱㄱ, ㆁ, ㆁ, ㆁ 등
이 글자들을 발음하는 방법은 글자를 만든 방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2점]

- ① 'ㄴ'은 혀끝이 마치 'ㄴ'자의 모양처럼 구부러지면서 윗니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② 'ㅋ'과 'ㆁ'은 둘 다 'ㄱ'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만든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발음되는 위치도 다르다.
③ 'ㅋ'은 'ㄱ'에 획을 더했으므로 'ㄱ'보다 세게 발음하고 'ㆁ'은 'ㄱ'에 획을 더했으므로 'ㄱ'보다 세게 발음한다.
④ 'ㄹ'은 입술 모양을 본뜬 것이고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이는 이들 글자가 발음되는 곳과 관련이 있다.
⑤ 'ㄷ'을 나란히 쓴 'ㄸ'이나 'ㅅ'을 나란히 쓴 'ㅆ'은, 'ㄷ'과 'ㅅ'을 발음할 때보다 발음 기관에 힘을 더 강하게 주면서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 (나)의 ㄱ~ㄷ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았을 때, 적절한 것은?

(가)
하늘이 매우 푸르구나.
(나)
ㄱ. 그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밤낮으로 공부했다.
ㄴ. 아이가 장난삼아 쓴 낙서를 지우려고 지우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ㄷ. 가을이 되면 하늘은 높푸르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넘실댄다.
(다)
ㄱ.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다.
ㄴ. 두 사람은 사과 하나를 사서 나눠 먹었다.
ㄷ. 그는 온갖 종류의 나물을 먹고 즐거워했다.
ㄹ. 아,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ㅁ. 이것은 철수가 좋아하는 꽃이며, 저것은 수진이 좋아하는 꽃이다.

[2점]

- ① 밤낮 ② 장난삼아 ③ 찾아봐도
④ 높푸르고 ⑤ 들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2점]

- ① '쌀은'을 [싸은]으로 발음하는 것은 기존의 음운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② '맨입'을 [맨닙]으로 발음하는 것은 음운이 새롭게 첨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③ '입학'을 [이팍]으로 발음하는 것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④ '신라'를 [실라]로 발음하는 것은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과 동일하게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⑤ '곡물'을 [공물]로 발음하는 것은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두 말이 '음운론적 이형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은?

[Blank box for answer]

주격 조사 '이'와 '가'는 동일한 문법 형태소로서 기능을 하지만, '이'는 '하늘이 푸르다.'에서 보는 것처럼 앞 음운이 자음일 경우에 나타나고, '가'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에서처럼 앞 음운이 모음일 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이'와 '가'를 서로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즉, 음운론적 이형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이형태를 말한다.

[2점]

- ① 그는 몰라도 너만은 학교에 꼭 와야 한다.
- ② 집으로 가는 길은 학교로 가는 길과 비슷하다.
- ③ 어머니께서는 남은 음식을 이용해서 찌개를 만드셨다.
- ④ 그는 고된 일정에 힘들어 하였지만 내내 웃음을 띠었다.
- ⑤ 친구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 <보기>를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음운 자체가 없어지는 '탈락', 음운이 덧붙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 등이 있다.

[2점]

- ① 동넱 → [동넱] ② 굳이 → [구지] ③ 먹는 → [멍는]
- ④ 닳다 → [달타] ⑤ 진리 → [질리]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레이저(laser)란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유도 방출에 의한 광 증폭'을 의미한다. 빛의 방출은 자연 방출과 유도 방출로 나눌 수 있는데, 백열등, 형광등과 같은 일반 빛의 대부분은 자연 방출에 의한 빛이다. 원자 또는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스스로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은 파장, 위상★,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출을 자연 방출이라고 한다. 반면에 유도 방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영향으로 높은 에너지의 원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면서 빛을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 의한 개의 광자가 위상과 파장, 방향이 동일한 두 개의 광자로 방출된다는 것이 유도 방출의 핵심이다.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도 방출에서 나오는 빛을 더욱 강한 빛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레이저 발진' 과정이다. 먼저 레이저 발진 장치의 구조를 살펴보자. 레이저 발진을 하기 위하여 레이저 봉 양쪽에 반사 거울을 장치하는데, 이것을 '공진기'라고 하며, 한쪽은 빛을 거의 100% 반사하는 전반사 거울을, 다른 한쪽은 일부분의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부분 반사 거울을 장치한다. 그리고 레이저 봉과 부분 반사 거울 사이에는 '큐-스위칭'을 두게 되는데, 레이저 발진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빛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레이저 발진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레이저 봉에서 나온 위상과 파장이 같은 빛이 양쪽 거울에 반사되어 무수히 왕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례로 유도 방출이 생겨, 빛이 증폭되거나 광학 부품에 의한 투과와 산란에 의해 손실되기도 한다. 만약 레이저의 증폭이 공진기의 손실보다 크면, 레이저의 강도는 점점 증폭되어 부분 반사 거울을 통과하여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빛이 바로 레이저이다. 이와 같이 레이저 빛은 발생 과정에서 위상과 파장, 방향이 같은 나란한 빛만 나오므로 거의 퍼지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

레이저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접하는 태양 광선이나 전등 빛과 다른 몇 가지 물리적 특성 때문이다. 레이저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 단색성, 즉 단일 파장의 빛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태양 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색의 스펙트럼이 생긴다. 레이저는 그 무지개색 중 단 하나의 색깔 빛, 단색광을 내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특정한 물체에만 반응하게 할 수 있다. 레이저의 또 다른 특성은 ㉡ 간섭성이 아주 큰 빛이란 사실이다. 레이저는 위상과 파장이 같기

때문에 둘 이상의 빛이 만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독특한 간섭무늬가 생기는데, 이것은 레이저가 간섭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 지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레이저는 퍼지지 않고 가느다란 빛으로도 평행하게 대단히 먼 거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레이저는 바코드와 레이저 프린터, 광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에 대해 과학자들은 '과거에는 발전의 정도를 가능하는 기준이 전자였다면 미래에는 레이저가 그 기준을 차지할 것이며, 레이저의 기술에 ㉣ 힘입어 다른 분야의 과학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어휘 풀이 |

★ 위상(位相): 진동이나 파동과 같은 주기적 현상에서, 일주기(一週期) 내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특징지어 나타내는 변수.

8.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과 같은 것은?

보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점]

- ① 본받다 ② 남다르다 ③ 손쉽다
- ④ 앞세우다 ⑤ 그늘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10]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에서는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를 축약(縮約)이라고 한다.

[2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 위 대화에서 '남학생'이 ㉠와 같이 오해를 한 이유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 하시오.

보기

- 담화의 맥락을 고려할 것
- 비분절 음운에 초점을 맞출 것.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제시된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복합어의 구조를 바로 파악하려면 그 층위를 밝혀서 그 묶임의 순서를 바로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이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개었을 때의 그 각각을 말한다. 가령 '금목걸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금'과 '목걸이'인데 이것을 잘못 '금목'과 '걸이'로 분석한다면 사람의 목이 금으로 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맨손체조' 역시 '맨손'과 '체조'로 분석되어야 이것을 '맨'과 '손체조'라고 한다면 '맨-'이라는 접두사가 신체의 일부가 아닌 '체조'와도 결합하는 꼴이 되고 의미도 엉뚱해질 것이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합성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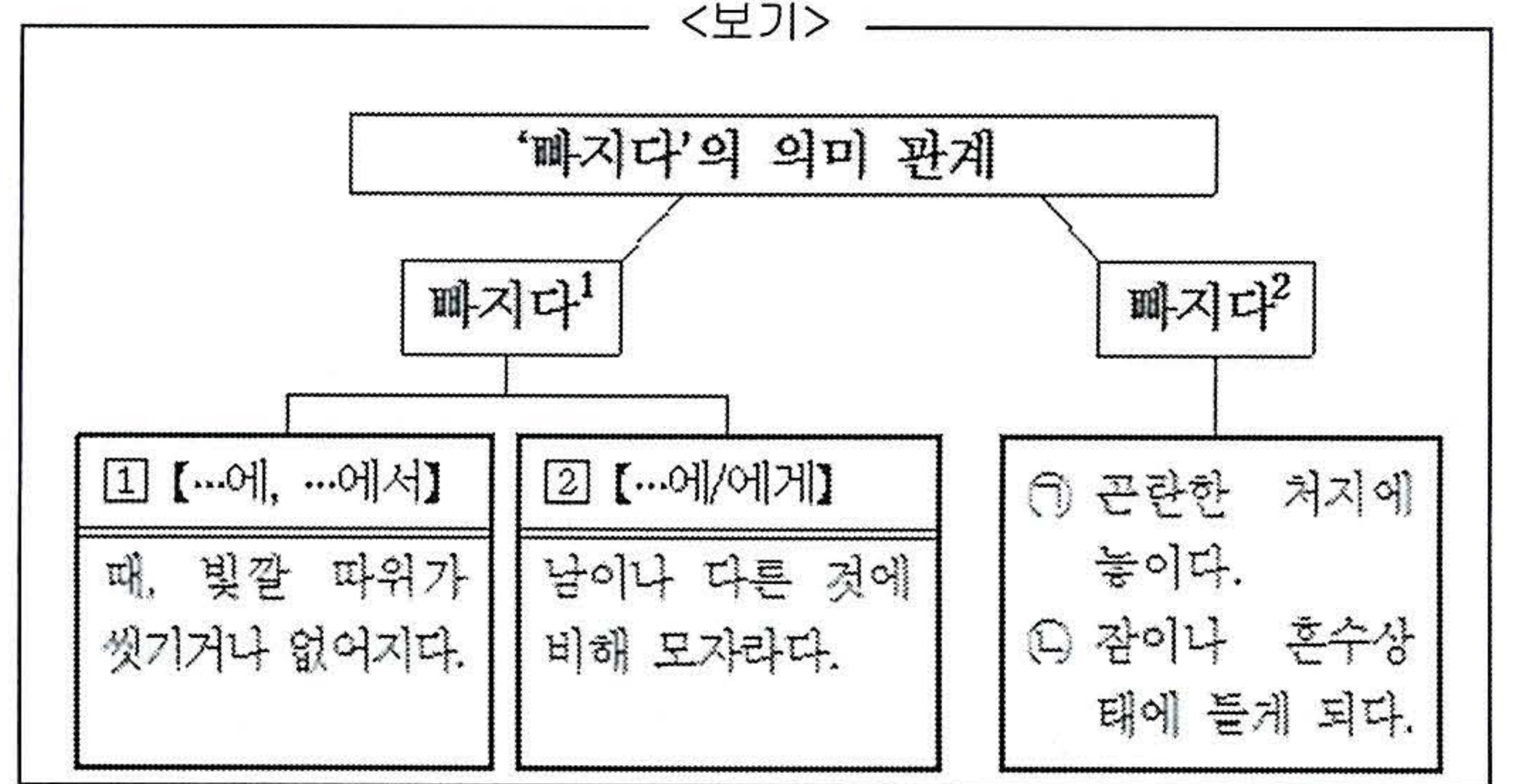
합성어는 단어 배열법에 따라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 '통사적 합성어'와 그렇지 않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의미 관계에 따라 앞 성분이 뒤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는 '종속 합성어', 앞 성분과 뒤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띠는 '대등 합성어', 앞 성분과 뒤 성분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2점]

- ① 둘다리 : '명사+명사'의 구성이면서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다.
- ② 덮밥 : '용언의 어간+명사'의 구성이면서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자 종속 합성어이다.
- ③ 쌀밥 : '명사+명사'의 구성이면서 단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자 대등 합성어이다.
- ④ 춘추(春秋) : '명사+명사'의 구성이면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며 '나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자 융합 합성어이다.
- ⑤ 검푸르다 : '용언의 어간+용언'의 구성이면서 단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3. <보기>는 '빠지다'의 의미 관계를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빠지다¹'과 '빠지다²'는 동음이의어로군.
- ② '빠지다¹'은 '빨아도 얼룩이 지지 않는다.'의 '지다'와 유사한 의미로군.
- ③ '빠지다¹'의 용례로 '내 실력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를 쓸 수 있군.
- ④ '빠지다²' ㉠과 ㉡에는 '없음'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군.
- ⑤ '빠지다²'를 ㉡의 의미로 쓸 경우, 반의어로는 '깨다'가 가능하겠군.

문항코드 : 13-27-60-213

14. <보기>에서 설명한 '동화'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 중에서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ㄴ'이 유음 'ㄹ'과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유음화', 그리고 후설 모음인 'ㅏ, ㅑ, ㅓ, ㅕ'가 전설 모음인 'ㅣ' 앞에서 각각 'ㅙ, ㅛ, ㅜ, ㅠ'로 바뀌는 'ㅣ모음 역행 동화'는 모두 앞이나 뒤에 오는 음운을 닮아 가는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음운 변동을 '동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도 뒤에 오는 모음 'ㅣ'의 성질을 닮아 간다는 점에서 동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점]

- ① '신라'와 '실내'는 각각 [실라]와 [실래]로 발음된다.
- ② '아기'와 '어미'를 [애기]와 [에미]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 ③ 명사 '밥' 뒤에 조사 '만'이 연결된 '밥만'은 [방만]으로 발음된다.
- ④ '갈다'의 어간 '갈-'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가치]로 발음된다.
- ⑤ '날다'의 어간 '날-' 뒤에 어미 '-은'이 결합하면 [나은]으로 발음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엄마가'의 '엄마', '먹다'의 '먹-'과 같이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경우,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2점]

- ① 점심으로 오징어덮밥을 먹었다.
- ② 늦봄의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였다.
- ③ 동생이돌다리를 건너 집으로 왔다.
- ④ 안개비가 연기가 깔리듯 자욱이 내리기 시작했다.
- ⑤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있다.

문항코드 : 13-27-60-215

16. 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실질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며,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형태소는 높임, 의문, 시제, 추측, 진행상 등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며, 선어말어미나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기>

- 나는 어제 스파게티를 ㉠먹었다.
- 얼마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냐?
- 지금은 그 행사가 이미 ㉢끝났겠군.
- 손목시계를 ㉣보면서 교실로 향했다.
-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참 ㉤고우시다.

[2점]

- ① ㉠의 '먹-'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의 어간이므로 실질형태소이다.
- ② ㉡의 '하늘'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실질형태소이다.
- ③ ㉢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므로 형식형태소이다.
- ④ ㉣의 '-면서'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므로 형식형태소이다.
- ⑤ ㉤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므로 형식형태소이다.

문항코드 : 13-28-10-212

1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점]

- ① 먹히다
- ② 발머리

- ③ 숨이불
- ④ 좋으면
- ⑤ 한여름

문항코드 : 13-27-90-211

18. <보기>의 대화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철수 : 어떨 때 '-쟁이'가 붙고, 어떨 때는 '-장이'가 붙는 건지, 헛갈려.
 영민 :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거야.
 철수 : 그래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하는 거구나.
 영민 : 그렇지. 대신 어떠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에는 '-쟁이'를 쓰는 거야. '멋쟁이'처럼.
 철수 : 그러면 나는 연애를 잘하니까, '연애장이'겠다.
 영민 : 뭐라고, 웬 허풍이야? 설사 그렇더라도 '연애쟁이'라고 해야 해.
 철수 : 잘 알았어. 나는 장난치기 좋아하는 '개구쟁이'라고.

[2점]

- ① 영민이는 철수를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② 영민이는 멋을 내는 것을 기술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 ③ 철수는 장난을 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만약 연애가 기술로 인정받는다면, '연애장이'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⑤ 영민이는 쓸데없이 말이 많은 친구를 지칭할 때 '수다장이'라고 할 것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9~20] 다음은 비음화와 유음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 ㉠ 밥을 → [밤을], 밝는다 → [밥 : 는다] → [밤 : 는다], 앞문 → [암문] → [암문]
- ㉡ 달는 → [단는], 걸문 → [걸문] → [건문]
- ㉢ 국민 → [궁민], 깎는 → [깎는] → [깡는], 키웁만 → [키웁만] → [키웁만]
- ㉣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 ㉤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실눈 → [실 : 룬]

우선 ㉠ ~ ㉣의 예는 비음화를 나타낸 것인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은 입술소리 'ㅂ, ㅍ'이 비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의 예는 잇몸소리 'ㄷ, ㅌ'이 비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은 여린입천장소리 'ㄱ, ㅋ, ㆁ'이 비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변하기 전 음운과 변한 이후의 음운이 동일한 조음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은 입술소리, ㉡는 잇몸소리, ㉣는 여린입천장소리인 것이다. 위의 예들은 모두 역행 동화에 해당 한다. 반면 ㉤와 ㉤의 예는 유음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어에서 'ㄹ'은 대개 두 가지로 실현된다. 하나는 종성으로 쓰였을 때이고, 하나는 초성으로 쓰였을 때이다. 이에 따라 유음화 현상은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는 역행 동화, ㉤는 순행 동화인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와 같이 'ㄹ'이 초성으로 쓰였을 때는 역행적인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와 같이 'ㄹ'이 종성으로 쓰였을 때는 순행적인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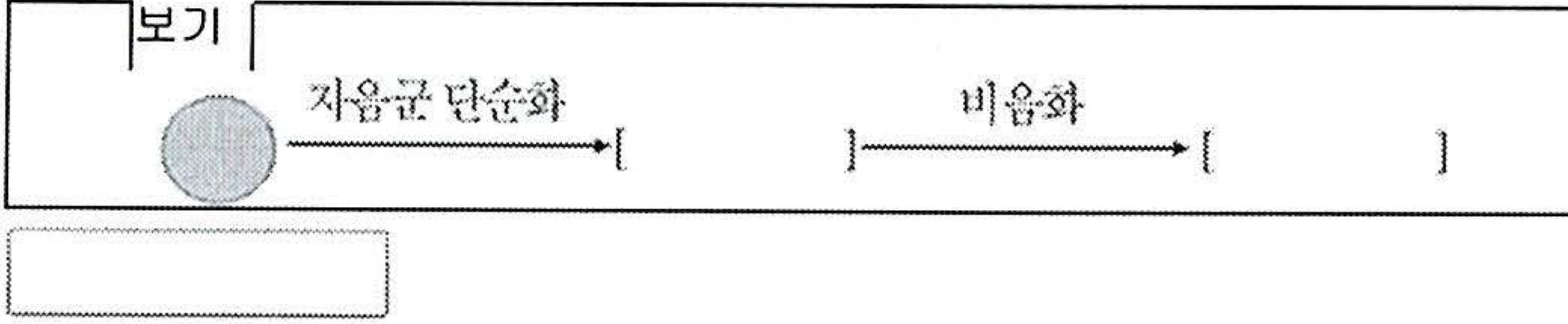
19.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운 변동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돈 좀 빌려 달라고 했더니 친구는 않는 소리만 하더라.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0.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발음을 각각 쓰시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1. ㉠~㉣ 중에서 관형어의 형성 방식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어느 날 선생님은 ㉡ 웬 아이를 ㉢ 우리 교실로 데리고 오셨다. 눈부시게
 ㉣ 하얀 옷을 입은 ㉤ 그 아이는 우리 앞에서 얼굴을 붉혔다.

[2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2. <보기>를 참조해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를 구분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과제의 수행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기
 동화 현상은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는 것을 말한다. 음운이 동화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다.
 • 순행 동화: 앞의 음이 뒤의 음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화 현상
 예) 종로 → [종노]
 • 역행 동화: 뒤의 음이 앞의 음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화 현상
 예) 국물 → [궁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설날	○	①
신라		○②
당력	○	③
앞문		○④
첫눈	○	⑤

[2점]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음운'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수준의 말소리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와 '너'를 다른 소리로 인식하는 것은 'ㄱ'과 'ㄴ'을 별도의 음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운은 한 언어 내에서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자음이나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분명하게 잘 나누어지는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소리의 길이나 억양처럼 다른 소리와 분명하게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탐구 결과]

- ㄱ.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ㄴ.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성조'는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ㄷ. '발'의 의미와 '살'의 의미는 'ㅂ'과 'ㅅ'이라는 음운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 ㄹ. '말 : [말]'과 '말 [馬]'을 별개의 단어로 인식하는 것은 비분절 음운의 차이 때문이다.
- ㅁ. 세계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운은 동일하지만 그것의 사용 방식은 각기 다르다.

[2점]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4.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 '첨가'는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것이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것을 가리킨다.

[2점]

- ① 한여름[한녀름] ② 막히면[마기면]
 ③ 물난리[물랄리] ④ 빛나무[빈나무]
 ⑤ 넣어서[너어서]

문항코드 : 13-27-60-211

25.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형식적으로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집에 있어'라는 말을 할 때, 문장의 끝을 내리는 경우와 올리는 경우, 그리고 평탄하게 끝맺는 경우 이 문장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되기도 하며 명령을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2점]

- ① 음성 언어에 비해 문자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설명한 것이군.
 ② 비분절 음운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군.
 ③ 말하는 상황에 따라 동일한 발화도 해석에 차이가 생김을 설명한 것이군.
 ④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군.
 ⑤ 어떤 문맥에 쓰이는가에 따라 발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함을 설명한 것이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발음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발음된다.
 ◦ 겹받침에 관한 발음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겹받침 ‘ㄱ’, ‘ㄴ’, ‘ㄷ, ㄹ, ㄹ’, ‘ㅂ’의 경우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뱃다’만은 예외적으로 [뱃 : 따]로 발음한다.
 -겹받침 ‘ㄹ’, ‘ㄹ’, ‘ㄹ’의 경우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2점]

- ① ‘뱃고’는 [뱃꼬]로 발음해야겠다.
- ② ‘뱃고’는 [뱃 : 꼬]로 발음해야겠다.
- ③ ‘뽕고’는 [뽕꼬]로 발음해야겠다.
- ④ ‘뽕고’는 [뽕 : 꼬]로 발음해야겠다.
- ⑤ ‘뽕고’는 [뽕꼬]로 발음해야겠다.

문항코드 : 13-27-30-212

27.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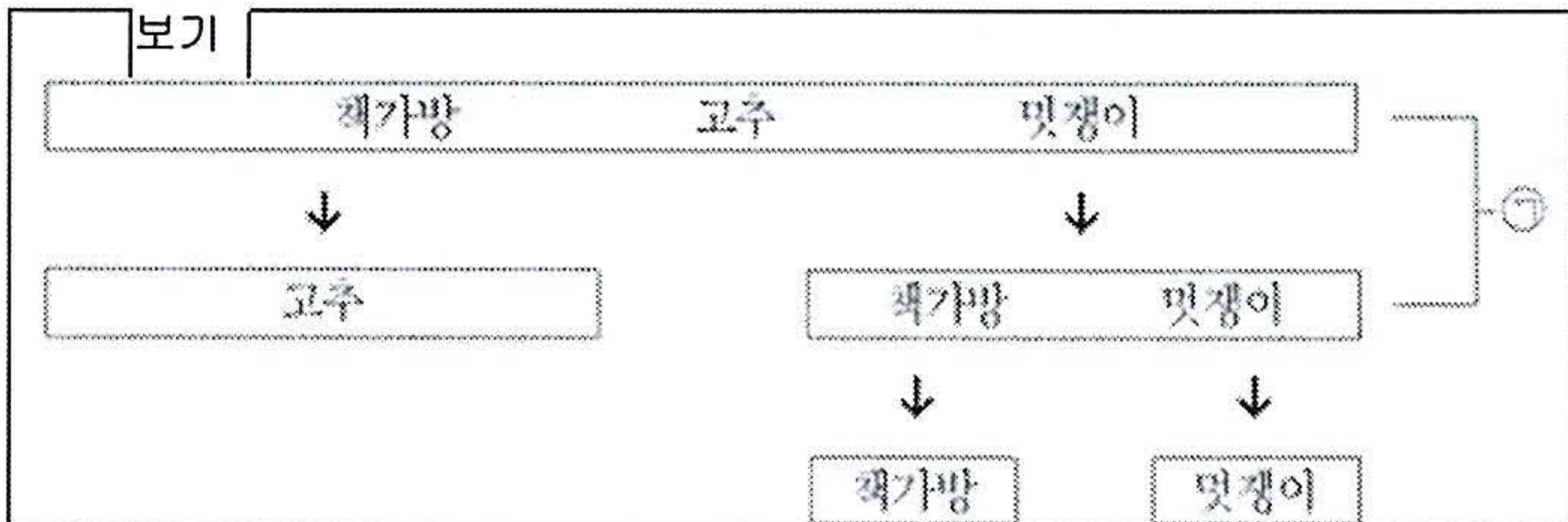
동화 현상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동화에는 ‘ㄴ, ㄹ’의 앞에서 ‘ㄱ, ㄷ, ㅂ’이 ‘ㅇ, ㄴ, ㄹ’으로 변하는 비음화, ‘ㄹ’의 앞뒤에서 ‘ㄴ’이 ‘ㄹ’로 변하는 유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있다.

[2점]

- ① ‘밤물’은 [밤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밭이’는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난리’는 [난니]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땀받이’는 [땀바지]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먹는다’는 [멍는다]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14-27-30-211

28. <보기>는 단어의 분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단어 분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가?
- ② 직접 구성 요소의 어느 하나가 의존적인가?
- ③ 둘 이상의 직접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 ④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 합성어인가?
- ⑤ 앞 성분이 뒤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합성어인가?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9. <보기>의 ㉠~㉤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집안일이 워낙 ㉣많거든요. 봄이 ㉤와서 화단에 꽃이 잔뜩 ㉦피어 ㉧있지만 나가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기계가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람 손이 꼭 필요한 일들은 ㉪어전한 것 같아요.

[2점]

- ① ㉠은 유음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과 ㉣은 자음 축약의 예에, ㉢은 모음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 ③ ㉣은 반드시 ‘ㄴ’을 첨가해서 발음해야 어법에 맞지만, ㉦는 반모음 ‘ㅇ’을 첨가한 발음과 첨가하지 않은 발음이 모두 인정된다.
- ④ ㉤와 ㉩에서는 ‘ㅈ’이 ‘ㄷ’ 발음 뒤에서 된소리로 바뀌어 각각 [일지만]과 [헐지만]으로 발음된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ㅎ’이 탈락되므로, 각각 [조아지긴]과 [여저난]으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접사 중에서 단어의 파생에 기여하는 것을 ‘파생 접사’라 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는 ‘굴절 접사’라고 하는데, 파생 접사는 다시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구분된다.

[2점]

- ① ‘빛깔’의 ‘-깔’과 ‘뒹개’의 ‘-개’는 접미사이겠다.
- ② ‘꽃을 보네’에서 ‘을’과 ‘-네’는 굴절 접사이겠다.
- ③ ‘깨끗이 먹어라.’에서 ‘깨끗-’과 ‘먹-’은 어근이고 ‘-이’와 ‘-어라’는 접사이겠다.
- ④ ‘누르다’, ‘뱃다’의 앞에 붙어서 ‘짓누르다’, ‘짓뱃다’를 만드는 ‘짓-’은 접두사이겠다.
- ⑤ ‘넘치는 물’에서 ‘넘치는’은 어근인 ‘넘-’과 접사인 ‘-치-’와 ‘-는’으로 구성된 단어이겠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1. <보기 1>의 설명에 따라 <보기 2>의 ㉠과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1
 ‘어간’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 중에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전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어미’는 어간 뒤에서 실현되며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곧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쓰이는 어휘적인 뜻을 나타내는 불변 요소이며, 어미는 용언의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가변 요소이다. 반면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법에서 단어의 짜임새를 설명할 때 쓰이는 용어다. 곧 어근은 한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며,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예를 들어 ‘깨뜨렸다’는 어간 ‘깨뜨리-’와 어미 ‘-었-’과 어미 ‘-다’로 나눌 수 있으며, 어간 ‘깨뜨리-’는 다시 어근 ‘깨-’, 접사 ‘-뜨리-’로 나눌 수 있다.

보기 2
 ‘짓밟았다’의 어간은 (㉠)이고, 어근은 (㉡)이다.

[2점]

- ① 짓밟-, 짓밟았-
- ② 짓밟-, 짓밟-
- ③ 짓밟-, 밟-

- ④ 짓밟았-, 짓밟
- ⑤ 짓밟았-, 밟-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2. (라)의 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
달 / 말 / 발
들 / 물 / 불

(나)
말 : [言], 말 [馬, 斗] / 밤 : [粟], 밤 [夜] / 가 : 정(假定), 가정(家庭) / 물 : 다 [問], 묻다 [埋]

(다)
ㄱ. 부엌 → [부억], 잎 → [입]
ㄴ. 밭물 → [밭물], 받는다 → [반는다]
ㄷ. 신라 → [실라], 꿀는 → [꿀른]
ㄹ. 해돋이 → [해도지], 같이 → [가치]
ㅁ. 국밥 → [국빡], 덮개 → [덥개]

(라)
ㄱ. 잡히다 → [자피다], 좋고 → [조코]
ㄴ. 신여성 → [신녀성], 집일 → [짐닐]
ㄷ. 크+어서 → 커서, 타+았다 → 탔다

[2점]

- ① 착하다
- ② 놓고
- ③ 말하다
- ④ 활고
- ⑤ 답답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우리말은 어근끼리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술방울'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술'과 '방울'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고, '푹고추'는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푹-'과 어근인 '고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 부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 부른다.

[3점]

- ① '맨주먹'은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단어이군.
- ② '날짐승'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군.
- ③ '군소리'와 '군밤'은 어근 앞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파생어이군.
- ④ '돌다리'와 '집안'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므로 합성어이군.
- ⑤ '감나무'는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고, '나무꾼'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군.

문항코드 : 13-27-30-215

34. <보기>의 ㄱ~ㅁ을 토대로 '복수'를 표현하는 '들'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x) /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 있었다. (o)
 ㄴ. 거리에서 친구 셋들을 만났다. (x) / 교실에 친구 세 명들이 남아 있었다. (x)
 ㄷ. 물들이 많이 흐르고 있다. (x) / 빨리 물들 떠 오너라. (o)
 ㄹ. 여기들 잠자코 있어라. (o) / 여기들이 삼각산이다. (x)
 ㅁ. 너들은 모두 착한 어린이구나. (x) / 너희들끼리만 놀지 말고 함께 놀아라.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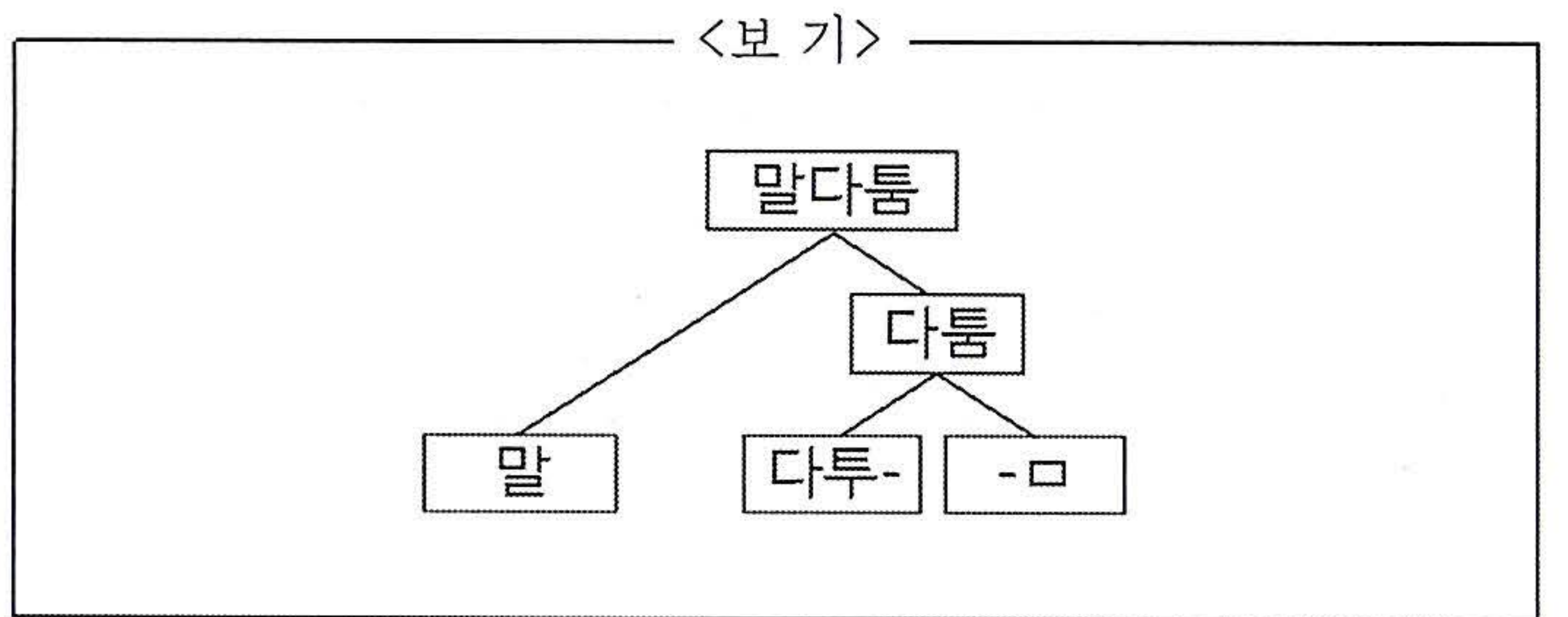
*o: 어법에 맞음 / x: 어법에 틀림

[2점]

- ① ㄱ → 집단이나 전체를 의미하는 명사 뒤에는 결합할 수 없으나, 그 명사가 구체적인 개별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결합할 수 있군.
- ② ㄴ → 수사를 사용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 문장에서는 수사나 단위성 의존 명사 뒤에 모두 결합하지 못하는군.
- ③ ㄷ → 개체로 나누어 셀 수 없는 명사 뒤에는 결합할 수 없는데, 생략된 주어 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결합할 수 있군.
- ④ ㄹ →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 뒤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장소를 지시하는 대명사 뒤에는 결합하지 못하는군.
- ⑤ ㅁ → 단수를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 뒤에는 결합하지 못하는데, 복수를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 뒤에는 결합할 수 있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5. 단어의 계층 구조가 <보기>와 같은 것은?



[2점]

- ① 글짓기
- ② 나들이
- ③ 달리기
- ④ 들기름
- ⑤ 웃음보

문항코드 : 13-27-90-212

36.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말[mal] : 발[pal]'은 단 하나의 소리에 의하여 뜻이 구별된다. 그리하여 /ㅁ/과 /ㅂ/은 각각 별개의 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음소라도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어떨까? 예컨대 '부부'라는 말에서 앞의 /ㅂ/은 [p]로 실현되지만 뒤의 /ㅂ/은 [b]로 실현된다. 그러나 앞의 /ㅁ/과 /ㅂ/의 예와는 달리 실제로 [p]와 [b]는 뜻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나는 두 음성은 하나의 음소로 묶는 것이 원칙이다.

[2점]

- ① '개'와 '새'는 단 하나의 소리에 의하여 뜻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바다'와 '가방'에서 /ㅂ/은 각각 [p]와 [b]로 실현되므로 하나의 음소로 묶을 수 없겠군.
- ③ '가마'와 '가사'에서 /ㅁ/과 /ㅂ/은 각각 별개의 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밭[pab]'의 [p]와 [b]는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도 나타나지 않겠군.
- ⑤ '가구[kagu]'의 [k]와 [g]는 환경에 따라 /ㄱ/이 서로 달리 나타난 것이므로 한 음소로 처리해야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7. 다음은 음운 현상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습 활동

아래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음운 변동이란, 환경에 따라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음 'ㄱ, ㄷ'이 'ㄴ'이나 'ㅁ'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으로 발음되는 등의 '자음동화', 'ㄷ, ㅌ'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ㅌ, ㅍ'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음절 끝에 위치한 'ㅌ, ㅍ'이 각각 'ㄷ, ㅂ'으로 발음되는 등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같은 것이 모두 음운 변동의 사례에 해당한다.

굳이, 꽃, 부엌, 곡물, 속는다, 말머느리

(질문 1)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나요?

- ① 예 ()
- ② 아니요 (㉠)

(질문 2)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나요?

- ①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
- ②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

㉠

㉡

[2점]

- ① 굳이, 부엌 꽃, 곡물
- ② 속는다, 말머느리 굳이, 곡물
- ③ 꽃, 부엌 굳이, 속는다, 말머느리
- ④ 굳이, 꽃 부엌, 속는다, 말머느리
- ⑤ 꽃, 부엌 곡물, 속는다, 말머느리

문항코드 : 13-28-10-211

38.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보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보 기 >

고르다² ㉠

- 1. (...을)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돌쪼날쪼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다.
- 2. (...을)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 강모는 거문고 줄을 꼴라 다시 한 곡조를 뜯었다.

고르다³ ㉢

- 1.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 이 지역은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린다.
- 2.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 생각보다 날씨가 고르다.

[2점]

- ① 고르다²와 고르다³은 동음이의어이다.
- ② 고르다²와 고르다³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③ 고르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④ 고르다²의 1의 용례로 '그는 목소리를 고르고 있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고르다³은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항코드 : 14-27-30-212

39. <보기>의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비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통사적인 특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어근이 배열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예를 들어 '산들바람', '(㉠)'와 같이 부사가 체언 앞에 와서 합성어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원래 부사는 체언 앞에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사 규칙인데, '산들바람'과 같은 경우 부사 '산들'이 체언 '바람' 앞에 와서 합성어가 형성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점]

- ① 꺾쇠
- ② 집집이
- ③ 뼈꼭새
- ④ 딸랑이
- ⑤ 어린아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뿔걸음질을 치면서 ㉡놀다가 ㉢가시덤불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 엉덩이가 ㉤엄청 따가웠지만 ㉥울음을 꺾 ㉦참았지.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거든.

[2점]

- ① ㉠은 파생어이고, ㉢은 합성어이다.
- ② ㉡과 ㉣은 동사이고, ㉤은 부사이다.
- ③ ㉤은 자립 형태소 1개와 의존 형태소 2개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의 '-었-'과 ㉦의 '-았-'은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 ⑤ ㉤의 직접 구성 요소는 '을--음'으로 분석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ㄱ~ㅁ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태의 변화가 없으면서,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이 관형사이고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을 꾸며 주는 말이 부사이다. 그런데 관형사는 체언과, 부사는 용언의 부사형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형사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등 일반적인 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체언과 구별하고, 부사는 '는'이나 '도'와 같은 보조사가 쉽게 결합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용언의 부사형과 구별하곤 한다.

ㄱ. 새 옷, 그 사람, 저 학교
 ㄴ. 그는 키가 무척 크다. 하지만 몸은 매우 가볍다.
 ㄷ. 큰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ㄹ. 한 사람이 왔다. 친구 셋을 데리고 왔다.
 ㅁ. 올해는 눈이 참 많이 내린다.

[2점]

- ① ㄱ : 형태의 변화 없이 체언을 꾸며 주는 것으로 보아, '새', '그', '저'는 관형사이다.
- ② ㄴ : 형태의 변화 없이 용언을 꾸며 주는 것으로 보아, '무척'과 '매우'는 부사이다.
- ③ ㄷ :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는 문장을 꾸며 주는 것으로 보아 '다행히'는 부사이다.
- ④ ㄹ : '한'에는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셋'에는 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셋'이 관형사이다.
- ⑤ ㅁ : '참도', '많이도'처럼 보조사가 쉽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참'과 '많이'는 부사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 중 ㉠에 해당하는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대부분의 동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을 한다. 예를 들면 '읽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는 '읽-고, 읽-는, 읽-으니, 읽-어서, 읽-느냐, 읽-는다'처럼 사용된다. 그런데 '데리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데리-고, 데리-어(데려)'는 가능하지만, '데리-는, 데리-느냐'처럼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우리말에는 ㉠활용할 때 어미 결합에 제약이 있는 동사들이 있다.

[2점]

- ① 맛과 더불어 멋이 중요해진 사회이다.
- ② 내가 울자, 놀란 동생도 덩달아 울었다.
- ③ 흥분한 그는 덮어놓고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했다.
- ④ 신입 시절을 돌아보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격변의 시대를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 시대의 흐름을 눈여겨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3~44] 다음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잠'과 '웃음'의 품사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깊은 잠', '큰 웃음'의 '잠'과 '웃음'은 명사이고, '깊이 잠', '크게 웃음'의 '잠'과 '웃음'은 동사이다.

-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 깊이 잠으로써 피로가 풀렸다.
- 큰 웃음을 웃었다. •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깊은 잠(자 + -ㅁ)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의 '잠'은 동사 어간에 접사 '-ㅁ'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이에 비하여 '깊이 잠(자 + -ㅁ)으로써 피로가 풀렸다.'에서 '잠'은 동사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동사의 명사형이 되었다. 또한 '큰 웃음(웃 + -음)을 웃었다.'의 '웃음'은 파생 명사이며, '크게 웃음(웃 -

+ -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의 '웃음'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잠'과 '웃음'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접사로서의 '-(으)ㅁ'은 명사형 어미 '-(으)ㅁ'과 형태가 같아 표면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는 명사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이다.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인 '잠'과 '웃음'은 각각 '자는 것'과 '웃는 것'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는 이 단어들이 동사에 명사형 어미 '-(으)ㅁ'을 붙인 동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그 앞에 '깊이', '크게' 등과 같은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파생 명사로 쓰인 '잠'과 '웃음'은 파생 명사(어근+접미사)로서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대신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접사와 어미의 형태가 같을 때, 부사의 수식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다.

43. <보기 1>의 ㉠, ㉡은 <보기 2>의 국어사전 표제어 중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고르시오.

보기 1
 좋은 ㉠꿈을 자주 ㉡꿈으로써 심리 치료 효과를 얻었다.

보기 2
 꿈 「명사」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꾸다 「동사」 ('꿈'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쓰여) 꿈을 보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4. <보기>의 ㄱ~ㄹ 중, 파생 접사인 '-(으)ㅁ'이 쓰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ㄱ. 나에겐 네가 좋은 대학에 갈 거란 믿음이 있어.
 ㄴ. 그가 죽음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ㄷ. 그의 걸음으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하겠다.
 ㄹ. 그것을 읽은 고등학생에게 기본이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보기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예) ㄱ : 수소, 수사돈, 수은행나무 ㄴ : 솟소, 솟사돈, 솟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수랑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닭, 수탕나귀, 수돼지, 수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예) 숫양, 숫염소, 숫쥐

[2점]

- ① 영수네 집에는 암염소를 키우고 있어.
- ② 우리 개가 사냥에 소질이 있나 봐. 수평을 잡았어.
- ③ 수나사와 암나사를 잘 조여야 풀어지지 않을 거야.
- ④ 어제 우리 고양이가 숫놈 두 마리, 암놈 한 마리를 낳았어.
- ⑤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정말 구시대적인 내용이야.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 [46~47](1) 젊은이들이 음악을 즐겨 듣는다.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2) 옷, 물이 얼음이 되었네. (독립어+주어+보어+서술어)
 (3) 나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1) ~ (3)에는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짜임새를 가진 문장을 **출문장**이라 한다.

- (4)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5)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집에서 논다.
 (6) 비가 오더라도 안개만 개면 비행기는 출발한다.

그런데 (4) ~ (6)은 그렇지 않고, 서술어가 두 번 또는 그 이상 나타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또는 그 이상 이루어져 있다. (4)에는 서술어가 '옳았음'과 '깨달았다' 둘이 있고, 각각의 주어는 '그가'와 '우리는'이다. (5)에는 서술어가 '가고'와 '논다' 둘이 있고, 각각의 주어는 '형은'과 '동생은'이다. (6)에는 서술어가 '오더라도', '개면', '출발한다' 셋이 있고 각각 주어는 '비가', '안개만', '비행기'이다. 이처럼 서술어가 둘 이상 나타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진 짜임새를 가진 문장을 **겸문장**이라 한다.

출문장이 겸문장을 이루는 과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4)처럼, 한 출문장을 절로 바꾸어 다른 문장의 어떤 성분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가 옳았다.'라는 출문장이 '그가 옳았음'이라는 명사절로 바뀌어 전체 문장의 목적어가 되었다. 이러한 짜임새를 가진 문장을 **안문장**이라 한다. 둘째는 (5)와 (6)처럼 출문장이 둘 이상 서로 이어져서 겸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짜임새의 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 한다.

- 임지룡 외, 「문법 교육론」 -

46. 다음 ㄱ~ㄹ의 문장이 안고 있는 절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 ㄱ.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ㄴ.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ㄷ. 나는 승찬이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ㄹ.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7. 다음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겸문장의 짜임새를 쓰시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말은 보태고 떡은 떼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8.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사어의 종류와 예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에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가 있다. 성분 부사어는 용언, 체언,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준다.

[2점]

- ①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장미꽃이 정말 예쁘다.

- ②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이상하게 오늘은 운이 좋다.
 ③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그가 매우 높이 뛰어올랐다.
 ④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내 차가 아주 새 차가 되었다.
 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다행히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

문항코드 : 14-27-30-213

49. <보기>를 통해 '부사어'의 특징을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름달은 ㉠정말 아름답다. 보름달은 친한 ㉡친구처럼 다정하다. ㉢대체 누가 보름달을 만들었을까. 밝은 보름달이 ㉣점점 다가온다. 보름달을 ㉤친구에게 ㉥꼭 보여 주고 싶다.

[2점]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사어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는군.
 ② ㉢과 ㉣을 보니, 부사어는 그 문장 내에서 문장 끝만 제외하면 어느 곳으로 옮겨도 자연스럽게.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사어 중에는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군.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특정한 문장 성분을 수식하기도 하는군.
 ⑤ ㉣과 ㉤을 보니, 문장 안에서 부사어가 연달아 쓰이기도 하는군.

문항코드 : 13-27-60-212

50. 다음 표의 ㉠에 해당하는 문장 종류의 예로 적절한 것은?

청자의 전체	요구 여부	요구하는 것	행동 요구의 대상
전제함	없음		
	있음	대답	청자 ……㉠
행동		화자와 청자	
전제하지 않음			

[2점]

- ① 아버님께서 오셨느냐?
 ②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③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어라.
 ④ 아, 벌써 새 아침이 밝았구나!
 ⑤ 지금 밖에는 하얀 눈이 온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1. <보기>의 ㄱ~ㄹ을 활용하여 '연결 어미의 제약'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내가 신문을 보면서 네가 밥을 먹는다. / 내가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ㄴ. *그가 들어서고 있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 그가 들어서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ㄷ. *철수는 이 책을 읽느라고 밥을 새워라. / 철수는 이 책을 읽느라고 밥을 새웠다.
 ㄹ. *엄마의 부탁으로 콩을 사러 시장에 있다. / 엄마의 부탁으로 콩을 사러 시장에 갔다.

ㄹ. *일찍 떠났으려고 준비를 해 두어 다행이다. / 일찍 떠나려고 준비를 해 두어 다행이다.

*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임을 의미함.

[2점]

- ① ㄱ : '-면서'는 앞에 오는 절의 주어에 제약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ㄴ : '-자'는 앞에 나타나 있는 진행상과의 결합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ㄷ : '-느라고'는 뒤에 오는 절의 명령형 문장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ㄹ : '-러'는 뒤 따라 오는 절에 올 수 있는 서술어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ㅁ : '-(으)려고'는 앞에 결합할 수 있는 시제 선어말 어미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2. <보기>를 참고할 때, '유의문'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단어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 간에도 의미가 유사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능동문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나는 아빠의 아내를 좋아한다.'라는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능동문과 피동문, 단어를 풀어 놓거나 유의어로 대체한 문장들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문'이 될 수 있다.

[2점]

- 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어서 집에 가거라.
 시간이 매우 늦었으니 빨리 집에 가거라.
- ② 나는 학교에서 철수를 못 만났다.
 나는 학교에서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 ③ 나는 외삼촌을 좋아한다.
 나는 엄마의 남동생을 좋아한다.
- ④ 철호가 영희의 이름을 불렀다.
 영희의 이름이 철수에게 불렀다.
- 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을 존경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존경 받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3. <보기>의 문장 ㄱ과 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매우 미끄럽다.
 ㄴ. 이것은 친구가 빌려 준 책이다.

[2점]

- ① ㄱ은 평서문이고, ㄴ은 감탄문이다.
- ② ㄱ은 출문장이고, ㄴ은 겸문장이다.
- ③ ㄱ은 이어진문장이고, ㄴ은 안은문장이다.
- ④ ㄱ에는 주어가 두 번 나타나고, ㄴ에는 관형어가 두 번 나타난다.
- ⑤ ㄱ에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고, ㄴ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4.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예) 새 책에 이름을 적어 두었다.

•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성분

- ① 관형사
-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안긴문장(절)**: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함

- ① **관형절**: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절), 이때 관형절은 '-(으)ㄴ' '-는' '-던' 등의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함.
 예) '무소유'는 내가 읽었던 책이다.

<보기>

ㄱ. 어느 지역이든 유명한 관광지는 있기 마련이다.
 ㄴ. 내가 산 꽃을 그녀의 화단에 옮겨 심었다.
 ㄷ. 나는 동전 다섯 개를 잃어버렸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3점]

- ① ㄱ의 '유명한'은 명사 '관광지'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 ② ㄴ의 '그녀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명사 '화단'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 ③ ㄴ의 '산'은 '사다'의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것이므로 '내가 산'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ㄷ의 '다섯'은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이므로, '동전 다섯'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ㄱ의 '어느'와 ㄷ의 '그'는 모두,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자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문항코드 : 13-28-10-214

55. 다음은 선어말 어미 '-겠-'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이다.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구름이 낀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ㄴ. 서울에는 지금쯤 눈이 내리겠다.
 ㄷ.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
 ㄹ. 그 목표를 (제가/형이*) 꼭 이루겠습니다.
 ㅁ. 그 정도는 어린애도 (알겠다./할 수 있겠다.)

*는 비문 표시임.

[2점]

- ① ㄱ을 통해 '-겠-'이 미래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ㄴ을 통해 '-겠-'이 현재의 사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ㄷ을 통해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었-'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ㄹ을 통해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ㅁ을 통해 '-겠-'이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코드 : 14-27-30-215

56. (나)의 ㄹ과 같이 증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은?

(가)
 ㄱ. 저 사람이 어제도 우리를 도와주었다.
 ㄴ. 네가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ㄷ. 아이구, 허리가 아파 죽겠다.
 ㄹ.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며 꾸벅 인사를 한다.
 ㅁ. 순이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주었다.

(나)
 ㄱ.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ㄴ. 우리는 모두 그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ㄷ. 철수가 키가 아주 크다.
 ㄹ. 비가 오지 않아서 모를 내지 못했다.
 ㅁ. 그는 떠났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 있다.

(다)
 ㄱ. 어서 아이에게 밥을 먹여라.
 ㄴ. 오랫동안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던 도둑이 어제 잡히었다.
 ㄷ. 할아버지께서 아직 진지를 잡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ㄹ. 철수는 원하는 동화책을 사지 못했다.
 ㅁ. 영희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

[2점]

- ①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출항할 수가 없다.
- ② 바야흐로 가을이 되니 날씨가 청명해졌다.
- ③ 영수가 방을 나가니까 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 ④ 철수는 영희를 좋아하나, 영희는 준우를 좋아한다.
- ⑤ 순이는 예쁜 인형을 사려고 온 시내를 돌아다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7.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새가 날아간다.
 ㄴ. 어디 갔니, 영희는?
 ㄷ.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ㄹ.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ㅁ.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2점]

- ① 'ㄱ'과 'ㄷ'을 보면,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

- ② 'ㄱ'과 'ㄹ'을 보면, 주격 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어.
- ③ 'ㄱ'과 'ㅁ'을 보면, 상황에 따라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
- ④ 'ㄴ'과 'ㄷ'을 보면, 주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있어.
- ⑤ 'ㄷ'과 'ㄹ'을 보면, 주어는 한 단어뿐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어.

문항코드 : 13-27-30-213

58. <보기>를 참고하여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은 '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은 '사동문'이라고 해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이거나, '-게 하다', '-시키다'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꾼 예]
 ㄱ. 개가 밥을 먹다. → (철수가) 개에게 밥을 먹이다.
 ㄴ. 그가 집에 가다. →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
 ㄷ.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 → (어머니께서)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

[3점]

- ① ㄱ~ㄷ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군.
- ② ㄱ~ㄷ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군.
- ③ ㄱ의 주동문은 ㄷ처럼 '-시키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겠군.
- ④ ㄴ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
- ⑤ ㄴ의 주동문은 사동 접사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없겠군.

문항코드 : 13-27-60-214

5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가 시작된 시각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보 기>

엄마: 아까 낮에 형과 전화하던데, 무슨 이야기 했니?
 아들: 형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도착해 보니까 영화가 곧 시작되겠다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 늦지 않게 영화를 봤겠지?
 아들: 네, 그럴 거예요.

(a) 형이 영화관에 도착한 시점
 (b) 형이 영화 시작 시간표를 확인한 시점
 (c) 형이 동생에게 말한 시점
 (d) 아들이 엄마에게 말한 시점

- ①
- ②
- ③
- ④
- ⑤

문항코드 : 13-27-90-213

60.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피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고,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그런데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중 접미사에 의한 것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 한편 사동 표현의 경우 접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형 사동의 경우에는 직접적 의미와 간접적 의미 양쪽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지만 '-게 하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형 사동의 경우에는 간접적 의미로만 해석된다.

ㄱ. 엄마 품에 안긴 아기
 ㄴ. 장막에 가려진 얼굴
 ㄷ.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
 ㄹ. 아이에게 신발을 신게 하다.
 ㅁ. 사자에게 쫓기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다.

[2점]

- ① ㄱ과 ㄴ은 모두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② ㄱ에 사용된 '-기-'와 ㄷ에 사용된 '-기-'는 그 기능이 다르다.
- ③ ㄴ과 ㄹ은 접미사를 이용하여 각각 피동과 사동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의 '신기다'와 달리 ㄹ의 '신게 하다'는 간접적 의미로만 해석된다.
- ⑤ ㅁ의 '쫓기는'과 '들리다'는 모두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1. (가)와 (나)를 비교하여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피동 표현은 (㉠) 사용하기도 한다.

[2점]

- ① 행위의 주체를 숨기기 위해
- ② 군더더기 표현을 없애기 위해
- ③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 ④ 전체 의미 해석을 다르게 이끌기 위해
- ⑤ 효과적인 대비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하나의 단어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다의어'라고 한다. 다의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뉜다. 중심적 의미끼리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주변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사이에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가) <u>넓다</u> ↔ (도로가) <u>좁다</u>	중심 ↔ 중심
(학교가) <u>넓다</u> ↔ (시야가) <u>좁다</u>	중심 ↔ 주변
(마음이) <u>넓다</u> ↔ (시야가) <u>좁다</u>	주변 ↔ 주변

* ↔: 반의 관계가 성립함.
 * ↔: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2점]

- ① 결심이 서다 --- 요직에 앉다
- ② 차렷 자세로 서다 --- 잠자리가 장대에 앉다
- ③ 칼날이 서다 --- 책상에 먼지가 앉다
- ④ 전봇대가 서다 --- 의자에 앉다
- ⑤ 일렬로 서다 --- 방석을 깔고 앉다

문항코드 : 13-27-30-211

63. (다)의 ㄴ의 '길다 : 짧다'는 정도나 등급의 측면에서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은찬: (진지하게 화내며) 뭘 봐요. 사과하라니까!
 한결: (이놈 장난 아니구나 싶은, 모니터 보며, 건성으로) 좋다. 사과해 준다. 뭘냐? (반응이 없자, 고개 들어, 은찬 보면)
 은찬: (노려보며, 진지한) 내 눈 보고, 정식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하세요.
 <중략>
 한결: (괜히 자존심 상하는) 휴, (작심하고) 부모님 애긴 내가 경술했다. 미안하다.
 -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나) 영희는 어제 영화를 보았어. 철수는 오늘 파리로 여행을 가. 사람들은 왜 음악을 들을까?

(다) ㄱ. 옥수수 : 강냉이, 영화나트롬 : 소금, 동무 : 친구, 죽다 : 돌아가다
 ㄴ. 남성 : 여성, 길다 : 짧다, 위 : 아래
 ㄷ. 단추 : 소매 : 옷 / 시침 : 시계
 ㄹ. 식구(입 → 가족이나 사람), 얼굴(형체 → 안면), 감투(벼슬아치가 쓰는 모자 → 벼슬)

[2점]

- ① 출발 : 도착 ② 참 : 거짓 ③ 삶 : 죽음
- ④ 밝다 : 어둡다 ⑤ 올라가다 : 내려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는 조사 '만큼'이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 대상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런데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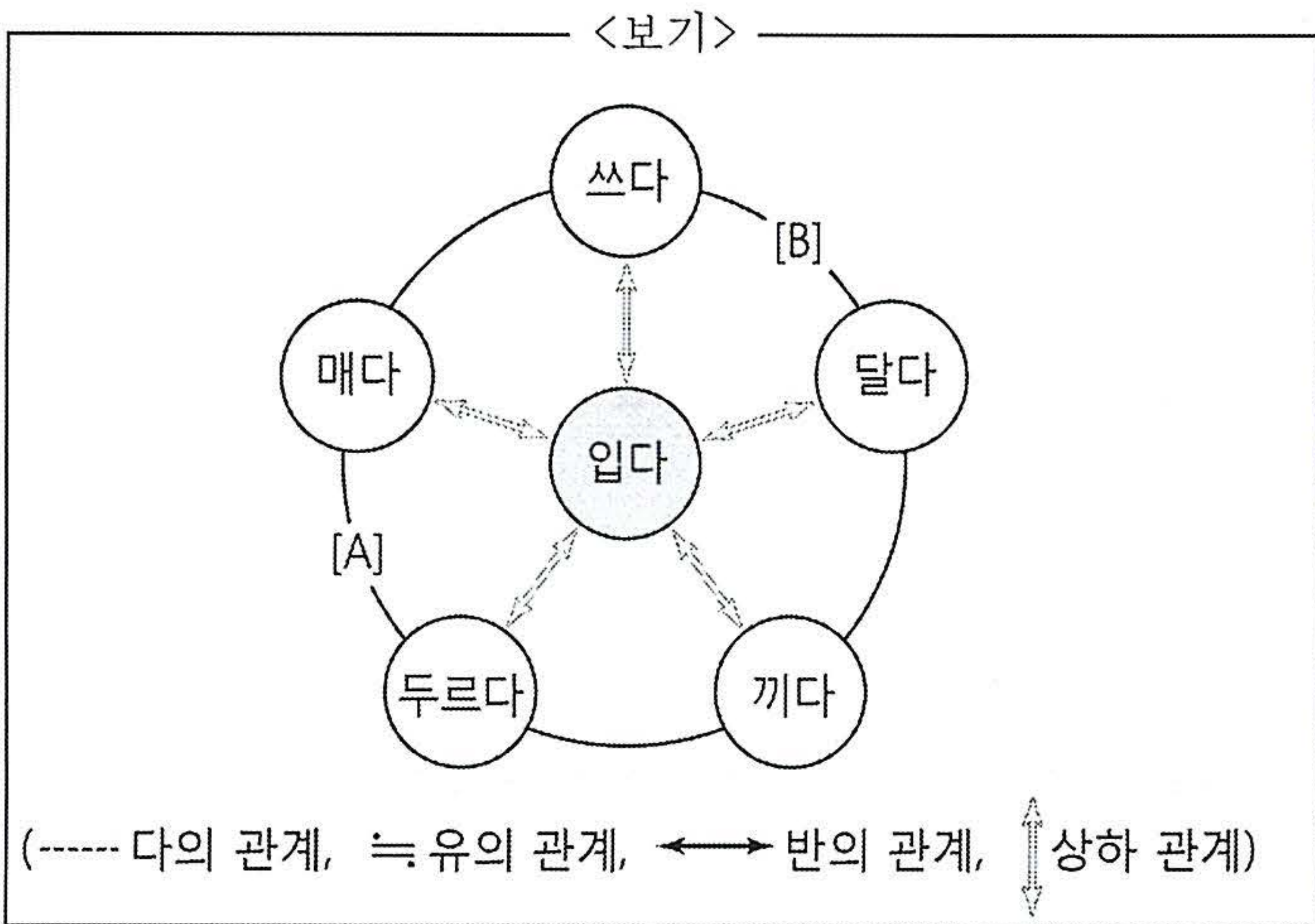
경우가 발생한다.

[2점]

- ① 그는 그녀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 ② 그녀는 나보다 얹은키가 훨씬 크다.
- ③ 그녀는 비싼 옷보다 책에 관심이 많다.
- ④ 그는 나만큼이나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 ⑤ 그녀는 나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한다.

문항코드 : 13-27-30-214

65.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입다'와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끼다'와 어울리는 대상은 장갑이나 반지 등이 있다.
- ② "이번 태풍으로 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다."의 '입다'는 <보기>의 '입다'와 다의관계이다.
- ③ [A]에는 "스카프를 매다."와 "스카프를 두르다."가 모두 성립된다는 점에서 '≒'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입다'와 상하관계에 있는 '쓰다'와 '달다'는 서로 반의관계라는 점에서 [B]에는 '↔'이 표시된다.
- ⑤ "옷에 이름표를 달다."와 "옷에 이름표를 붙이다."가 통한다는 점에서 '붙이다'를 '입다'와 상하관계로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13-27-90-214

66. <보기>의 ㉠~㉤는 중의문과 모호문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는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
- ㉡ 확실히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 ㉢ 머리 조금만 잘라 주세요.
- ㉣ 적당히 데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 ㉤ 방학 과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2점]

- ① ㉠는 조사 '과'를 불분명하게 사용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 ② ㉡는 '확실히'가 수식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 ③ ㉢는 '조금만'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하다.
- ④ ㉣는 물음의 형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의미가 모호하다.
- ⑤ ㉤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7] 국어의 부정 표현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정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특히 부정 표현은 단형이든 장형이든, 능력 부정이든 의지 부정이든 간에 부정의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정 표현 '안'으로 말미암아 '철수, 그 책, 읽다' 모두가 부정될 수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가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부정된다. (2)와 (3)도 마찬가지이다.

- (1)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 (2) 영화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 (3)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은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보조사 '만', '도', '는' 등을 덧붙이는 방법이 있다.

- (4) 철수가 그 책은 안 읽었다.
- (5) 영화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다.
- (6) 동네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4)에서는 부정하고자 하는 대상 '그 책' 뒤에 보조사 '은'을 넣음으로써 '철수가 안 읽은 것은 그 책이었다.'라는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5)에서는 '그리다'를 부정하여 '영화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한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6)에서는 '다'를 부정하여 '동네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다 온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5)는 '…… 보기만 한 것이다. / …… 만지기만 한 것이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조사를 해당 부정 표현 뒤에 붙여서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 밖에 문맥을 통한 방법, 강세를 통한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 이관규, 「학교 문법론」 -

67. 다음 문장을 '능력 부정'과 '단형 부정' 표현을 활용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쓰시오.

나는 그를 만났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8. <보기>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반의어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반의어 중에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이 철저히 양분되는 것이 있다. '출석'과 '결석'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반의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다음 예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예) ?같은 오늘 6시 모임에 출석하기도 했고 결석하기도 했다.
 ?같은 오늘 6시 모임에 출석하지도 결석하지도 않았다.
 ?은 어색한 문장을 의미함.

[2점]

- ① 가다 : 오다
- ② 길다 : 짧다
- ③ 살다 : 죽다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른쪽 : 왼쪽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9.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2점]

- ① 여학생이 발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해서
- ② 여학생이 맥락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달 내용이 모호해져서
- ③ 남학생이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여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 ④ 남학생이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 ⑤ 남학생과 여학생 둘 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강조해서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0. 다음은 표준발음법 수업의 일부이다. ㉠의 사례와 같은 것은?

선생님: '내복약'은 [내 : 봉낙]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 첨가 현상과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 첨가 현상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할 때, 뒤 단어의 첫소리가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하는 현상입니다. 비음화 현상은 '㉡, ㉢(ㄱ, ㅋ), ㉣'이 '㉠, ㉡'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내복약은 [내 : 복약 → 내 : 복낙 → 내 : 봉낙]으로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2점]

- ① 꽃-망울[꼐망울]
- ② 눈-요기[눈요기]
- ③ 영업-용[영영용]
- ④ 툃-마루[툃 : 마루]
- ⑤ 휘발-유[휘발류]

문항코드 : 13-27-90-311

7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보기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ㄱ'은 된소리로 발음함.)
 예) 낫이[낙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굴이[골씨], 활아[할타], 읊어[을퍼]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발 아래[바다래],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따], 걸웃[거돋], 헛웃

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예) 낫 없다[너겹따], 값어치[가버치]

[2점]

- ① 새로 키우게 된 닭 앞에 [달가페] 즙쌀을 뿌렸다.
- ② 남은 시간을 공부하면서 값있는 [가빈는] 시간을 보냈다.
- ③ 영수는 깜빡 잊고 옷옷을 [우도술] 교실에 두고 하교하였다.
- ④ 제자들은 선생님의 바람대로 멋있는 [머신는] 사람이 되었다.
- ⑤ 새벽마다 산기슭에는 [산끼슬게는] 물을 찾으러 내려온 동물들이 가득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2~73](가)

'맑군요'라는 올바른 표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 표준 발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더 나아가 표준 발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 [價]'에 대하여 '값, 값이, 값을, 값에' 등은 [갑, 갑씨, 갑슬, 갑세] 등으로 서울말에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서 '밤 [夜]'과 '밤 [粟]'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하여 발음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게 하였다.

(라)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 이외에 다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 말하자면,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즉 '여름'의 앞에 접사 '한-'을 붙여 '한여름'이 될 때 그 발음은 [한녀름]이다. 이런 현상은 '숨이불[숨 : 니불], 꽃잎[꼐닙], 국민윤리[궁민눌리]'처럼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요소의 끝이 자음이고 뒤 요소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사람들 중에 '한여름[한녀름]' 대신 [하녀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발음이어서 표준 발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마)

그런데 전통성과 합리성만으로 표준 발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맛있다'의 합리적인 발음은 [마덜따]이다. '맛없다'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제 [마덜따]라는 발음을 주변에서 듣기가 오히려 어렵다. 대신 [마신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관용'이라고 일컬으며, ㉠현실에서 고착된 관용은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 김선철, 「표준 발음법 해설」 -

72.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나)~(라)에 제시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쓰시오.

[Blank box for answer]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3. ㉠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표기와 발음을 쓰시오.

[Blank box for answer]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4. <보기>를 참고하여 '북한의 언어'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분단 6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언어에는 발음과 표기법, 어휘, 어법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생겼다. 우선 발음과 표기법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이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른 발음이나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휘의 측면에서는 발음이나 어법에 비해 훨씬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말 다듬기 사업'을 통해 외래어를 다듬은 말, 제도와 생활의 차이로 인해 새로 생겨난 말, 혹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진 말 등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어법 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어휘의 차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관용적 표현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였다.

[2점]

- ① 남한에서 '여성의 낙원'이라고 쓰는 것을 북한에서는 '녀성의 락원'이라고 쓰겠군.
- ②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아랫방, 나뭇잎'이라고 적지 않고 '아래방, 나무잎'으로 적겠군.
- ③ '노크, 커튼'이라는 말 대신 '손기척, 창가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말 다듬기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남한에서만 쓰는 '주말농장, 신용카드'나 북한에서만 쓰는 '만가동, 량권' 등은 제도와 생활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말이겠군.
- ⑤ '트집을 잡다.'라는 뜻으로,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까박을 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법의 차이로 인해 관용적 표현도 달라진 예에 해당하겠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5] 국어 단어 중에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잇소리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다음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눈+길 → [눈길] 등+불 → [등불]

그런데 이런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규칙을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다음과 같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합성 명사도 있기 때문이다.

은+돈 → [은돈] 콩+밥 → [콩밥] 기와+집 → [기와집]

한자(漢字)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 여섯 개의 두 음절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적는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한자어의 사잇소리 현상도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워 다음과 같은 단어는 사잇소리를 넣어 발음하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방법(方法) → [방뺨] (×) 효과(效果) → [효과] (×)

한편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 ㄴ'으로 시작되면 'ㄴ' 소리가 첨가되고,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될 때에는 'ㄴ'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사잇소리 현상의 하나이다. 특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잇몸(이+몸) → [인몸] 숨+이불 → [숨 : 니불]

7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을 쓰시오.

보기
 ㄱ. 콩엿 → [] ㄴ. 길가 路邊) → []
 ㄷ. 방길 → [] ㄹ. 초점 (焦點) → []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6.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할 때,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9항 받침 'ㄱ, ㅋ,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ㅋ, ㅍ]으로 발음한다.
 예) 뒤다[닥따], 키웁[키웁], 웃[웃], 있다[읷따], 빛다[빔따]
 제10항 겹받침 'ㄱㅅ, 'ㄴㅅ, 'ㄹㅅ, ㄹㅆ, ㄹㅈ,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ㅍ]으로 발음한다.
 예) 낫[낙], 앓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골], 활다[할따]
 제11항 겹받침 'ㄹㅌ, ㄹㅍ, ㄹ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ㅍ, ㅍ]으로 발음한다.
 예) 닭[닥], 늑지[늑찌], 삼[삼 :], 읊다[읷따]
 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웃이[오시], 꽃을[꼬출]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발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맛없다[마덜따], 걸뭇[거덜], 헛웃음[허두슴]
 제18항 받침 'ㄱ, ㅋ, ㅌ'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예) 국물[궁물], 단는[단는], 밥물[밤물]

[2점]

- ① 요 며칠 흐리다가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다. [말따]
- ② 귀가 전까지 기숙사 청소를 깨끗이 [깨꼬치] 하기 바랍니다.
- ③ 친구들과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바데서] 기마전을 했습니다.
- ④ 군것질을 잔뜩 했더니, 모처럼 먹는 피자가 맛없네요. [마덜네요]
- ⑤ 이상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엿가락 [역까락]처럼 늘어지는 거 같아요.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7~78] 다음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

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7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우리 모두 같이[가치] 가자.
- ② 이슬을 머금은 꽃망울[곶망울]이 예쁘다.
- ③ 이런 날씨에는 흙이불[흔니불]만으로는 추워.
- ④ 품삯을 받고 하는 일을 삯일[삭닐]이라고 하지.
- ⑤ 소나기로 한여름[한녀름]의 무더위가 식었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8. 위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보기>의 단어들 발음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발이랑 → [발이랑] → [받니랑] → [반니랑] ㉡ 미달이 → [미다지]

- ㉢ ㉣ ㉤ ㉥

- ① 제 8 항 제29항 제18항 제17항
- ② 제 8 항 제29항 제17항 제18항
- ③ 제13항 제29항 제18항 제17항
- ④ 제13항 제17항 제18항 제29항
- ⑤ 제 8 항 제18항 제17항 제29항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9. <보기>는 표준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보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ㄷ, ㅌ, ㅈ, ㅊ,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궤], 웃고름[웃궤름], 옆집[옆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앉고[안궤], 더듬지[더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궤다], 감기다[감궤다]

[2점]

- ① '덫개'는 [덫궤]인가요, [덫궤]인가요?
- ② '갈등'은 [갈궤]가 아니라 왜 [갈궤]인가요?
- ③ '낯설다'는 [낯궤다]인가요, [낯궤다]인가요?

- ④ '머금다'는 [머궤다]가 아니라 [머궤따]가 맞나요?
- ⑤ '남기다'는 [남궤다]가 아니라 왜 [남궤다]인가요?

문항코드 : 13-27-60-311

80. <보기1>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보기2>를 발음한다고 할 때,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장단음 구별은 무시)

보기 1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ㅌ, ㅈ, ㅊ, ㅌ, ㅌ'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ㅣ'는 [ㅣ]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보기 2
 오늘 강의의[강이에] 의의[의이]는 민주주의[민주주의]에 대한 희망[희망]과 의지[의지]입니다.

[2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1. <보기>는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ㄷ, ㄷ, ㄷ,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ㄱ', 'ㄷ', 'ㄷ, ㄷ,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ㅂ'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ㄷ, ㄷ,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2점]

- ① 이제야동녘에서[동궤계서] 해가 떠오른다.
- ② 그는꽃밭[곶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③ 비가 그치고 난 후 날씨가맑게[말궤] 개었다.
- ④ 그녀는 하얀 눈을밟고[밟궤] 앞으로 나아갔다.
- ⑤ 아버지의외궤[외궤] 인생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문항코드 : 13-27-30-315

82.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모음이 사용된 것은?

혀의 위치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ㅣ	ㅡ	ㅜ
중모음		ㅣ	ㅜ	ㅣ	ㅜ
저모음		ㅣ	ㅣ	ㅣ	ㅣ

보기

-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린다.
-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다.
-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을 때 발음된다.

[2점]

- ① 그네
- ② 오리
- ③ 휘파람
- ④ 번개
- ⑤ 가수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3. (나)의 표준 발음법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때,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가) 표준어 규정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시골내기, 신출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아지랑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미장이, 유기장이, 멧쟁이, 소금쟁이, 골목쟁이, 발목쟁이

(나) 표준 발음법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눈보라[눈 : 보라] 말씨[말 : 씨] 밤나무[밤 : 나무]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둥밤[쌍둥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예) 반신반의[반 : 신 바 : 닌 / 반 : 신 바 : 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예) 감다[감 : 따] - 감으니[가므니], 밭다[밭 : 따] - 밭으면[밭뜨면]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예) 감다[감 : 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 : 다] - 꼬이다[꼬이다]

[2점]

- ① 말싸움[말 : 싸움] ② 군밤[군밤] ③ 신어[시너]
- ④ 많으니[마느니] ⑤ 밭히다[밭 : 피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4.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아닌 것은?

보기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2점]

- ① 맨입 ② 절약 ③ 색연필 ④ 한여름 ⑤ 흙이불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5. 다음의 규정에 따른 때, <보기>의 ㉠~㉥의 표준 발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발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깎아[까까], 웃이[오시], 있어[이써]
 제14항 겹발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예) 낫이[넉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젖어미[저더미]

(나)
 제17항 받침 'ㄷ, ㅌ(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굳이[고지], 굳이[구지], 땀밭이[땀바지]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ㅌ, ㅍ, ㅍ, ㅍ,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예)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난로[نال : 로], 신라[실라], 칼날[칼랄]

(다)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ㅌ, 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뽕], 덮개[덥개], 넓죽하다[넙쭈카다]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ㅌ, ㅍ, ㅍ'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문고리[문꼬리], 길가[길까], 초승달[초승달]

(라)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숨-이불[숨 : 니불], 흙-이불[흔니불], 맨-입[맨닙]

보기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의 ㉠ 온맵시가 화려해진다. 그리고 온갖 꽃들도 ㉡ 꽃망울을 터뜨려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겨우내 한가하던 들판과 냇가도 분주해진다. 농부들은 ㉢ 겉옷을 벗어놓은 채 ㉣ 들일에 나서고, 아이들은 냇가에서 물소리에 맞춰 노래를 ㉤ 읊조린다.

[2점]

- ① ㉠ - [온맵씨가] ② ㉡ - [곶망우를] ③ ㉢ - [거도슬]
- ④ ㉣ - [들니레] ⑤ ㉤ - [읍조린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6.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녀는 하반신보다 상반신이 길다.
 ㄴ. 그는 취별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ㄷ. 유도 시합을 하는 선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2점]

- ① ㄱ, ㄴ,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문장입니다.
- ②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은 '토끼는 귀가 길다.'라는 문장과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 ④ ㄴ에서 밑줄 친 부분의 주어가 생략된 것은 안은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⑤ ㄷ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땀'입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7. (가)는 '구어 담화'이고 (나)는 '문어 담화'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제가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현혈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불붙은 성냥개비에게, 음, 불붙은 성냥개비를 가지고 다른 성냥개비에게 불을 붙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생명의 불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꺼져 가는 다른 성냥개비에게, 즉 피가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의 불씨를 조금. 그러니까 즉 피를 나눠 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 수업 발표 내용

(나)
 불붙은 성냥개비로 다른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불씨로 꺼져 가는 다른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현혈은, 조금만 마음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 교내 신문 투고 글

[2점]

- ① (가)는 (나)와 달리 상대 높임법의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불필요하게 말을 반복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주제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상황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8] 발화들이 모여 제대로 된 한 덩어리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 면과 형식 면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내용 면에서 발화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제대로 짜인 이야기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관된 주제 아래 발화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오늘은 호박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호박죽은 맛이 없습니다. 잘 익은 호박을 골라야 해요. 맛있는 호박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맛있는 호박죽을 끓일 줄 모릅니다. 딱딱한 껍질은 깨끗이 벗겨 내세요. 호박 속과 씨는 모두 빼내시고요. 다 되셨나요?”

위의 예문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발화들이 어떤 통일된 주제 아래 결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일된 주제는 이야기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오늘은 호박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호박을 골라야 해요. 맛있는 호박죽을 만들 수 있거든요. 딱딱한 껍질은 깨끗이 벗겨 내세요. 호

박 속과 씨는 모두 빼내시고요. 다 되셨나요?”

그러나 위와 같이 위의 예문을 통일된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다고 해도 어색한 느낌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 면에서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화와 발화를 연결하여 의미상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지시 표현, 접속 부사어 등과 같은 연결어를 사용해 응집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야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형식 요소라 할 수 있다.

88. <보기>의 발화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문을 쓰시오.

보기
 • 소금은 음식 맛을 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 소금은 오염된 부위를 소독하는 기능이 있다.
 • 소금은 음식물의 변질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9.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의 예를 <보기 2>에서 고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발화(發話)는 발화자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발화자가 상대방(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명령문을 사용하여 발화자의 의도를 직접 드러낸다. 하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 발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평서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의문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보기2>

- 모임에서 만나 둘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
 남자 A : ㉠저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남자 B : 그 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
 의사 :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환자 : 전부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 개학 후 교사가 학생들을 처음 대면한 상황
 교사 :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학생 : 선생님, 저희도 그래요.
- 귀가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상황
 아들 :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 : 그래, 금방 차려 줄게.
- 여행객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는 상황
 여행객 A :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행객 B : 그래요. 정말 아름답네요.

[3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항코드 : 14-27-30-214

[90](가)
 예서 : 선생님,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을 뵈었는데요. 교무실로 오시래요.
 선생님 : 예서야, 다시 한 번 말해 볼래?
 예서 : 교감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요, 선생님.
 선생님 : 알았다. 그런데 너, 지금 네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
 예서 : 잘 모르겠어요. 뭐가 틀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 나보다 교감 선생님을 높여야 하니까 '오시래요'가 아니라 '오라고 하세요'가 맞는 표현이란다. 규범에 어긋난 말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의식 수준이 낮다고 여길 수 있으니 유의하자.
 예서 : 네, 앞으로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

(나)
 (전화 울림음, 전화 왔음, 전화 왔음~)
 언니 : (나긋하게) 우리 착하고 예~쁜 예서, 점심 먹었니?
 예서 : 응, 그런데 갑자기 웬 칭찬, 수상한데?
 언니 : 뭘. 평소에도 널 사랑하잖아. 알면서~
 예서 : 헐~, 그러면서 매일 못생겼다고 구박하냐?
 언니 : 그건 장난이지. 예서야,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예서 : 으이구, 찐다 찐다. 그럴 줄 알았어. 뭔데?
 언니 : 곧 시험이잖니. 필요한 책을 방에 두고 왔어. 도서관으로 가져다주렴.
 예서 : 직접 와서 가져가면 되잖아. 너무 부려 먹는 거 아냐?
 언니 : 시험공부가 급해서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부탁?
 예서 : 단, 조건이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친구를 만나는데, 새로 산 청바지 빌려줘.
 언니 : 나도 아직 안 입어 봤는데? 하여간 요 여우~, 그래 알았다. 알았어!

90. (가), (나)의 사용역과 전달 매체를 정리하려고 한다. 빈칸을 채워 쓰시오.

	사용역		전달 매체
	관계	장소	
(가)	사제	(1) ()	말(구어)
(나)	(2) ()	가정	말(구어), (3) ()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수지 : 여보세요.
 언니 : 어, 수지야, 나야
 수지 : 응, 언니, 언니구나? 웬일이야?
 언니 : 점심은 먹었니?
 수지 : 아, 점심, 지금 먹고 있어. 그런데 완전 처량하게 혼자 먹어. 처량하다. 처량해.....
 언니 : 그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는 법인데. 그런데 참, 인강은 다 들었어?
 수지 : (매우 크게) 그럼! 정말 장하지, 나?
 언니 : 그래, 우리 수지 진짜 장해. 훌륭해. 멋져. 최고야.

(나)
 ㄱ. 시인 - 여류 시인, 미용사 - 남자 미용사
 ㄴ. 원고, 피고, 공탁 / 블루칩, 카르텔, 덩핑
 ㄷ. 개념, 전제, 가정, 귀납, 연역, 추론, 유추

(다)

제목	은신처 찾았다.
앵커의 말	동물원을 떠난 말레이 곰의 은신처가 일주일 만에 오

	늘 발견됐습니다. <중략> □□□ 기자입니다.
기자의 말	말레이 곰 꼬마의 발자국 옆에 낙엽들이 쌓여 있습니다. 인근에는 배설물도 보입니다. 청계산 국사봉 70여 미터 아래, 햇빛이 내리쬐는 남쪽 사면에 꼬마 곰이 만든 은신처입니다. <하략>

[2점]

- (가)에서는 중간에 매체를 바꾸어 가며 화자와 청자가 상호 작용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다)에서는 전달의 효과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청자에게 먼저 제시되고 있다.
- (가)와 (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어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가)에서는 (다)에 비해 동일한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
- (다)에서는 (가)에 비해 주어와 서술어를 온전하게 갖춘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2. 다음 대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학생은 발화의 상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 아주머니와 학생은 대화를 통해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다.
- 학생은 아주머니에게 발화에 담긴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아주머니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 아주머니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문항코드 : 13-27-90-215

9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담화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에 따라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나눌 수 있다. 문어 담화의 대표적 유형에는 신문 기사가 있고, 구어 담화의 대

표적 유형에는 일상 대화가 있다.

<보기2>

(가) 신문 기사

택시 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돈을 되찾아 준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씨(42세)는 지난 달 14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택시에서 현금 12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한 후, 승객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인근 경찰서로 가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다. 이후 가방을 되찾은 승객은 ○○○씨에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씨는 오히려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나) 대화

A: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B: 뭐?

A: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돈 찾아 줘대.

B: (의아한 표정으로)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A: 아니, 승객이 놓고 내린 돈가방을 경찰서에 신고했대. 사례금을 줘는데도 안 받고.

B: 정말? 대단하네, 그 사람.

A: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난 이런 기사 읽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2점]

- ① (가)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의 체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의 '대단하네, 그 사람.'으로 보아, 구어 담화에서는 어순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는군.
- ③ (나)에서 '그런데'를 '근데'로, '나는'을 '난'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구어 담화에는 줄임말이 자주 사용되는군.
- ④ (가)에 비해 (나)는 조사나 주어 등을 생략한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에 비해 구어 담화에서는 문법 요소들이 자주 생략됨을 알 수 있군.
- ⑤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가 구어 담화에 비해 정보의 기록성과 보관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군.

문항코드 : 13-28-10-215

[94] 어떤 발화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 그 자체는 물론이고 화자, 청자, 맥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발화는 이러한 요소에 따라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외에도 '선언,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등 실제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발화를 실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 준다.

- (1) 지금 몇 시니?
- (2) 저, 다음에 내려요.

(1)의 경우, 문장 자체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그와는 다를 수 있다. 즉, 현재 시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화한 것이라면 '질문'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1교시가 넘어 교실에 들어온 학생에게 선생님이 발화한 것이라면 학생이 지각한 것에 대해 '질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장 자체는 평서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경우에 따라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내릴 곳의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는 문장의

미 그대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호감을 느끼며 발화를 한 경우라면 '저와 함께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권유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발화된 문장 자체의 의미와 실제 발화의 의미는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다. 문장의 의미는 음운, 어휘, 통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그 의미가 파악되지만, 발화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94.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발화의 기능을 각각 쓰시오.

보기
 “빨리 가지 못하겠니?”라는 발화는 어딘가를 급히 가야 하는데 꾸물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빨리 가 달라.’라는 요청 또는 ‘빨리 가라.’라는 ()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미 가고 있기는 한데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빨리 가기가 힘이 드니?’를 함축한 질문 또는 ‘빨리 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의 의미로 볼 수 있다.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5](가)와 (나)의 두 담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가)</p> <p>필기의 종결자, 듀나 볼펜</p>  <p>예쁜 디자인을 원하십니까? 깔끔한 글씨를 원하십니까? 부드럽게 써지길 원하십니까?</p> <p>①듀나 볼펜, 누구나 탐내는 볼펜! 세계인의 볼펜!</p>	<p>(나)</p> <p>서경아, 같이 놀래?</p> <p>②너도 우리만의 비밀클럽 듀나 닷컴에 가입해 봐!</p>
---	--

95. ㉠과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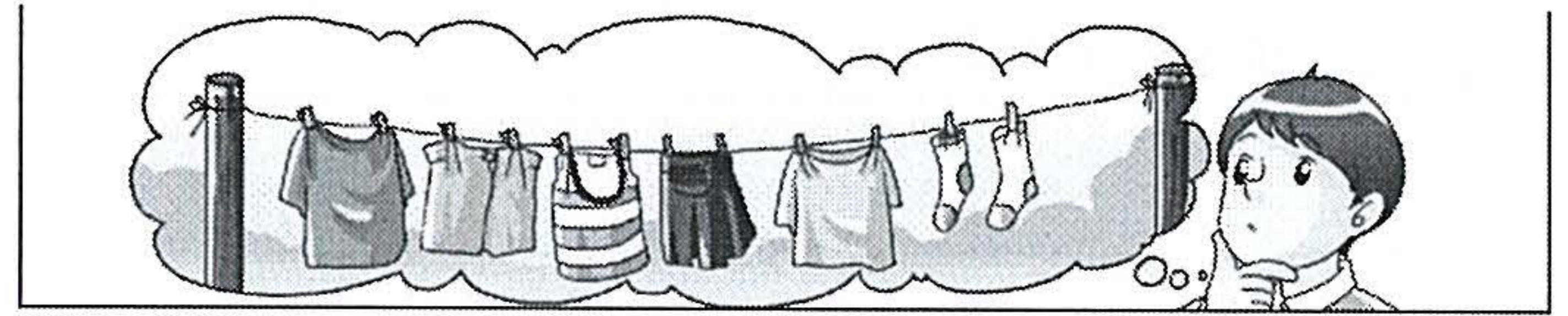
- ① ㉠은 ㉡과 달리 같은 어휘를 반복하여 응집성을 갖추었군.
- ② ㉠은 ㉡과 달리 청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 ③ ㉡은 ㉠과 달리 비문법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군.
- ④ ㉠과 ㉡은 모두 맥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과 ㉡은 모두 비대면성과 실시간성을 특성으로 하는 발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군.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6.

(가) 방송 기사
 앵커 :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한 끼 식사를 15분 미만으로 빨리 끝낸다고 합니다. 과연 건강에 괜찮을까요?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병원에서 성인 8천 7백여 명의 식사 시간을 조사한 결과, 15분 미만이 90%, 10분 미만이 53%, 5분 미만이 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똥똥해져, 5분 미만일 경우 비만 위험도가 15분 이상 먹는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칼로리 섭취가 늘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일 경우 110칼로리에 해당하는 밥 3분의 1공기를 더 먹게 됩니다. 신체가 아직 배고프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뇌에서 배부른 걸 인식하려면 적어도 20분이 걸립니다.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살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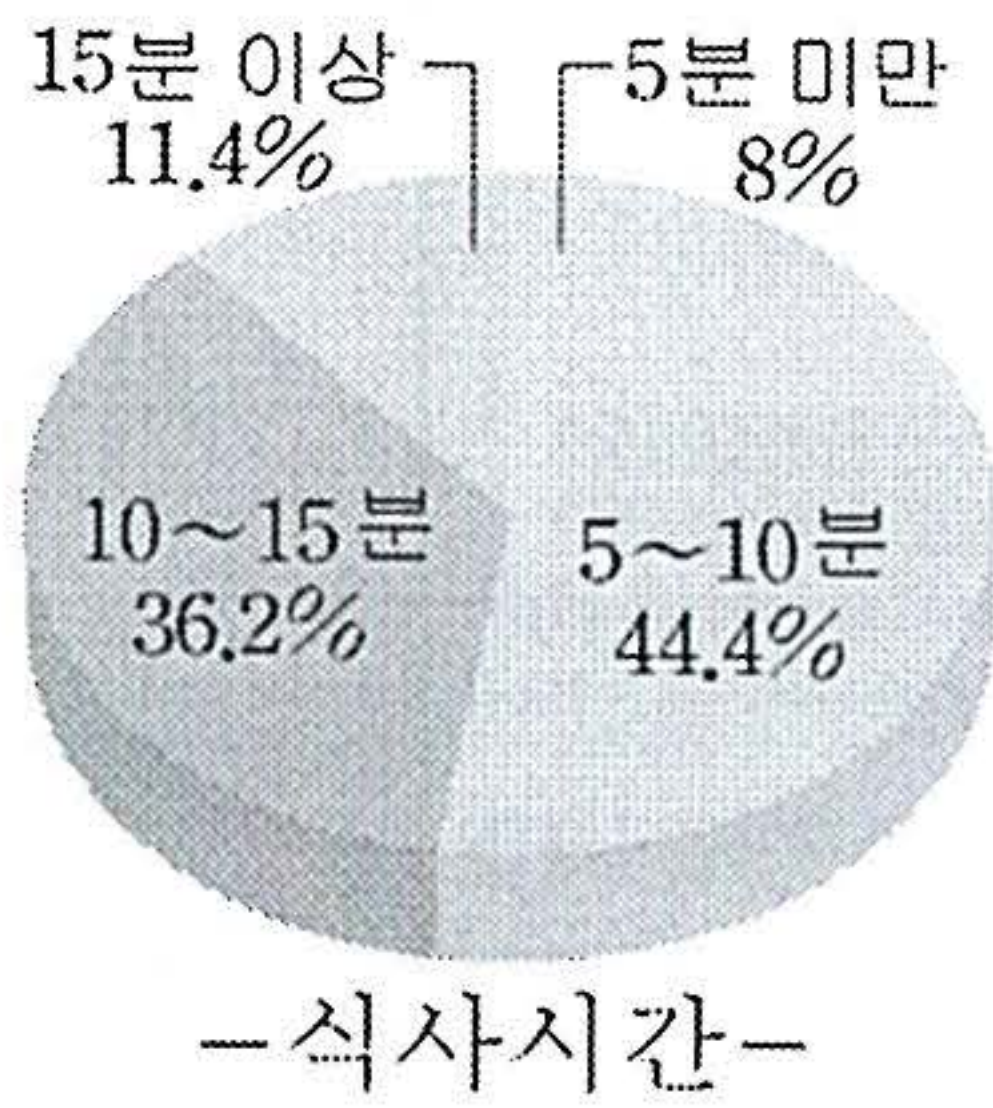
- ① 빨래가 다 말라 가.
- ② 빨래가 다 말랐네.
- ③ 빨래가 다 말랐을걸.
- ④ 빨래가 다 말라 가네.
- ⑤ 빨래가 다 말라 갈걸.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나) 신문 기사

5분 만에 '뚝딱' 식사 습관, 살찌게 만든다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비만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가정의학과 김□□ 교수팀은 8,77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각종 건강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약 11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에 비해 체중은 평균 4kg 이상이 더 나갔다. 조사 참여자들의 식사 시간은 5분 미만 8%, 5~10분 미만 44.4%, 10분~15분 미만 36.2% 등으로, 약 90%에서 식사 시간이 채 15분을 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빠른 식습관은 식사량을 많게 해 비만 위험을 높이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보 -

(가)와 (나)의 자료를 토대로 '방송 기사'와 '신문 기사'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빈칸을 채워 쓰시오.

	방송 기사	신문 기사
매체 종류	방송 매체 시각 매체, (1) () 매체	인쇄 매체 시각 매체
매체 언어의 특성	문자 언어와 (2) () 언어로 표현 앵커의 말을 통해 기사 내용을 소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를 도움 '~합니다.'로 끝나는 문장 표현 사용	문자 언어로 표현 (3) ()을 통해 기사 내용을 압축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를 도움 (4) '()'로 끝나는 문장 표현 사용

[2점]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7. <보기>와 같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물기가 거의 남지 않은 빨래에 대해 말하고 싶어. 빨래는 아까 빨랫줄에 널어서 거의 습기가 남지 않았어. 지금도 습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도 같이 표현하고 싶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1.

해설

단어의 구성 요소 분석

'접칼'은 용언 '접다'의 어간인 '접-'과 명사 '칼'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오르내리다'는 용언 '오르다'의 어간 '오르-'와 용언 '내리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

해설

합성어의 하위분류 이해

'나무망치'는 '나무 + 망치'로 '명사+명사'의 구성으로 된 합성어이다.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또한 '나무로 만든 망치'라는 의미로, 앞의 성분인 '나무'가 뒤의 성분인 '망치'를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

해설

자음의 형성 방법과 발음의 관계 파악

'ㄱ'은 'ㄱ'에 가획을 해서 만들었고 'ㄲ'은 'ㄱ'을 나란히 써서(병서)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가획은 공기를 더 세게 많이 내 보내면서 발음한다는 표시이고, 병서는 발음 기관에 힘을 더 강하게 주어서 발음한다는 표시이다. 즉 가획과 병서를 통해서 만든 글자들의 발음은 기본 글자와 발음 위치는 동일하지만 더 세게 발음하거나(거센소리) 힘을 더 주어서 발음한다(된소리). 그러므로 'ㄱ'과 'ㄲ'은 'ㄱ'과 발음 위치는 동일하지만 거세게 발음하거나 힘을 주어서 발음하는 소리라는 설명이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기본 글자가 그에 해당하는 발음을 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음을 설명함으로써, 그 발음을 하는 방법을 알게 할 수 있다.
- ③ 가획의 원리와 발음 사이의 관계를 알려 주는 설명이다.
- ④ 'ㄹ'은 입술에서 발음되는 소리이고, 'ㄴ'은 목구멍에서 발음되는 소리이다.
- ⑤ 각자 병서의 원리와 발음 사이의 관계를 알려 주는 설명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

해설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를 일컫는다. 우리말에서 두 개의 용언이 연결될 때는 앞 용언에 연결 어미가 붙어 뒤 용언과 연결된다. 그런데 '높푸르고'는 '높다'와 '푸르다'가 연결 어미 없이 '높푸르다'로 결합되었다. 이는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높푸르고'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① '밤낮'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② '장난삼아'는 '장난'과 '삼다'가 결합한 말이다. 우리말에서 서술어 앞에 체언이 위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해당한다. ③ '찾아봐도'는 '찾다'

해설

와 '보다'가 결합한 '찾아보다'가 활용된 말이다. '찾다'와 '보다' 사이에 연결 어미 '아'가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에 부합한다. ⑤ '들판'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

해설

음운 변동 현상의 적용

'신라' [실라]는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과 동일하게 교체되는 경우가 아니라,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과 동일하게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ㅎ'이 없어지는 '탈락'이다. 쌀은[싸은]은 'ㅎ' 탈락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ㄴ'이 삽입되는 '첨가'이다. 맨입[맨닙]은 'ㄴ' 첨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ㅂ'과 'ㅎ'이 결합하여 하나의 소리인 'ㅃ'으로 발음되는 '축약'이다.
- ⑤ 앞의 음운인 'ㄱ'이 뒤의 음운인 '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뀌는 '교체'이다. 곡물[공물]은 비음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

해설

음운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의 구별

'하였지만'의 '-었-'과 '떠었다'의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라는 점에서 그 기능은 같지만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기 어렵다. '-었-'과 '-었-'은 음운적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아니라, 음운론적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인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었-'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어간 뒤에 나타난다. 참고로 '-었-'의 음운론적 이형태는 '-았-'이다.

오답 피하기

나머지는 모두 음운적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

해설

음운 변동의 종류 확인

④는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바뀐 거센소리되기로서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은 음절 끝의 'ㄱ'이 'ㄲ'으로 바뀐 음절의 끝소리 규칙,
- ②는 모음 'ㅣ' 앞에서 'ㄷ'이 'ㅌ'으로 바뀐 구개음화,
- ③은 'ㄴ'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뀐 비음화,
- ⑤는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바뀐 유음화로서 이들은 모두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해설

임병욱, '레이저의 원리와 특징'

지문 선정의 이유

이 글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레이저의 원리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의 과학적 원리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이다.

읽기의 포인트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 그리고 레이저의 과학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한다.

지문 이해하기

해제 이 글은 레이저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레이저가 발생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레이저는 '레이저 발진'장치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레이저 빛은 발생 과정에서 위상과 파장, 방향이 같은 나란한 빛만 나오므로 거의 퍼지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레이저의 과학적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다음, 현재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고 레이저 기술에 대한 과학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레이저의 원리와 특징

흐름 파악하기

- 1문단: 레이저의 개념
- 2문단: 레이저 발진 장치의 구조
- 3문단: 레이저가 발생하는 과정
- 4문단: 레이저의 물리적 특성
- 5문단: 레이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8.

해설

합성어의 구성 방식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힘입다'는 '어떤 힘의 도움을 받다'라는 의미로 '힘'과 '입다'의 합성어이다. <보기>에 제시된 구성 방식에 연결해 보면, '힘을 입다'로 해석되므로 '목적어+서술어' 구조로 볼 수 있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 '본받다' 역시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라는 의미로 '본을 받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목적어+서술어' 구조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이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② '남다르다'는 '남과 다르다'로 해석되므로 '부사어+서술어'의 구조이다.
- ③ '손쉽다'는 '손이 쉽다'로 해석되므로, '주어+서술어'의 구조이다.
- ④ '앞세우다'는 '앞에 세우다'로 해석되므로 '부사어+서술어'의 구조이다.
- ⑤ '그늘지다'는 '그늘이 지다'로 해석되므로 '주어+서술어'의 구조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

해설

음운 축약의 이해

'뵈니까'는 '뵈- + -니까'로, 축약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 '왔지'는 '오- + -았- + -지'가 축약된 경우이다.
- ㉡ '돼'는 '되- + -어'가 축약된 경우이다.
- ㉢ '쓰여'는 '쓰- + -이--어'가 축약된 경우이다.
- ㉣ '가져다'는 '가지- + -어다'가 축약된 경우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

해설

비분절 음운의 기능 파악

담화의 맥락에서 여학생이 말한 '이 집'이 남학생의 집이 아니라 듀나의 앨범 2집을 말한 것임에 주목해 볼 때, 여학생이 '이 집'의 발음을 바르게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듀나 2집을 말할 때는 '이'를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

해설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적용

'첫날밤'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할 경우 '첫날'과 '밤'으로 나누어진다. '날밤'이라는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는 '[첫+날]+밤'의 구조로 그려지는 것이 옳다.

오답 피하기

- ① '코웃음'은 '코+[웃--+음]'으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옳다.
- ② '작은아버지'는 '[작--+은]+아버지'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옳다.
- ③ '볶음밥'은 '[볶--+음]+밥'으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옳다.
- ④ '시부모'는 '시--[부+모]'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옳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

해설

합성어의 분류

'쌀밥'은 명사 '쌀'과 명사 '밥'의 구성이므로,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어 통사적 합성어라 할 수 있다. 한편 '쌀밥'은 '쌀로 지은 밥'의 의미로 '쌀'이 '밥'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3.

해설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빠지다2' ㉠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이고, ㉡은 '잠이나 혼수상태에 들게 되다.'이므로 '빠지다2'는 '~한 상황에 놓이다', '~게 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없다'의 의미는 '빠지다1'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빠지다1'과 '빠지다2'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② '빠지다1'의 의미는 '때, 빛깔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이므로 '물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닦이거나 씻겨 없어지다.'의 '지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⑤ '빠지다2' ㉡은 '잠이 들다'는 의미이므로 반의어로 '깨다'가 가능하다.

문항코드 : 13-27-60-213

14.

해설

음운 변동 사례의 적절성 판단
 <보기>에서 설명한 동화는 어떤 음운이 앞이나 뒤의 다른 음운을 만나서 이를 닮아 가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낱은'이 [나은]으로 발음되는 것은 'ㅎ'이 앞의 모음 'ㅏ'와 뒤의 모음 'ㅡ' 사이에서 탈락한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① 'ㄴ'이 앞이나 뒤의 'ㄹ'을 닮아 가는 유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② 'ㅏ'와 'ㅑ'가 뒤에 오는 'ㅣ'의 영향을 받아 'ㅗ'와 'ㅓ'로 바뀐 것으로서, ㅣ모음 역행 동화의 예에 해당한다.
 ③ '밭'의 받침 'ㅃ'이 'ㅁ' 앞에서 이를 닮아 'ㅁ'으로 바뀐 것으로서, 비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④ 'ㅌ'이 'ㅣ' 앞에서 'ㄷ'으로 바뀐 것으로서,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5.

해설

[출제의도] 합성어를 형성하는 각 어근의 의미 변화를 파악한다.
 '구멍가게'는 '뚫거나 파낸 자리'를 나타내는 '구멍'과 '가게'가 합해져서 '조그맣게 차린 가게'라는 의미가 되므로 '가게'의 의미만 유지되는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덮밥'은 '물건 따위로 씌우다'라는 의미의 '덮다'와 '밥'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② '늦봄'도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라는 의미의 '늦다'와 '봄'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③ '돌다리'도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덩어리'를 나타내는 '돌'과 '물을 건너거나 다른 편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나타내는 '다리'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④ '안개비'도 '지표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인 '안개'와 '비'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문항코드 : 13-27-60-215

16.

해설

[출제의도] 형태소의 기능과 위치에 따른 분류 이해하기
 ㉔의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형식형태소에 해당한다.

① ㉔의 '먹-'은 동작을 나타내는 실질형태소이다. ② ㉔의 '하늘'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형태소이다. ④ ㉔의 '-면서'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며 뒷말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이므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형태소이다. ⑤ ㉔의 '-시-'는 문장 안의 주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어말어미 앞에 위치하므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형태소이다.

문항코드 : 13-28-10-212

17.

해설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해설

음운 축약은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것이다. '떡히다'는 [머키다]로 발음되므로 이것은 축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문항코드 : 13-27-90-211

18.

해설

접사 '-쟁이'와 '-장이'에 대한 탐구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다. 영민이가 철수는 허풍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허풍쟁이'라고 평했을 가능성이 높고, 철수는 자기가 연애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연애장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만약 연애가 기술로 인정받게 된다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연애장이'로 평가받게 될지 모른다. 영민이는 '-장이'와 '-쟁이'의 차이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말이 많은 사람을 '수다쟁이'가 아니라 '수다장이'라고 지칭한 ⑤가 적절하지 않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9.

해설

유음화의 이해
 종성 'ㄷ'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알은]으로,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를 통해 [알른]으로 발음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0.

해설

음운 변동의 적용
 '값만'에서 '값'은 음절의 끝에 'ㅃ'과 'ㅅ'의 두 개 자음이 왔으므로,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통해 'ㅅ'이 탈락하여 [값만]으로 발음된다. 또한 'ㅃ'이 'ㅁ' 앞에 있으므로 비음화 현상을 통해 'ㅃ'이 'ㅁ'으로 바뀌어 [값만]으로 발음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1.

해설

관형어에 대한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이다. 그런데 관형사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 관형어를 만들 수도 있으며, 명사, 수사, 대명사 등의 체언이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명사에 조사 '의'를 붙여 관형어를 만들 수도 있다. ㉠, ㉡, ㉢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예이며, ㉣은 대명사가 '교실'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은 '하얗다'는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해설

'ㄴ'이 결합해 관형어를 만든 경우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2.

해설

음운의 변동에 대한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역행 동화는 뒤의 음이 앞의 음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다. '첫눈'에서 '첫'은 [첸]으로 발음되지만 종성인 'ㄷ'이 '눈'의 초성인 'ㄴ'의 영향을 받아 [첸]으로 발음된다. 이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설날'은 '설'의 'ㄹ'의 영향으로 '날'의 'ㄴ'이 'ㄹ'로 발음되므로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 ② '신라'는 [실라]라고 발음되는데, 이는 '신'의 'ㄴ'이 '라'의 '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③ '담력'은 [담녁]으로 발음된다. '담'의 'ㄹ'의 영향으로 '력'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 ④ '앞문'에서 '앞'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압]이라고 발음되는데, 이 [압]이 [문] 앞에 위치하게 되면 종성인 'ㅂ'이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아 [암문]이라고 발음된다. 즉 '앞문'은 뒤의 음이 앞의 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하는 예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3.

해설

음운의 개념과 종류 확인

자음이나 모음, 소리의 길이나 억양 등이 모두 음운에 속한다는 설명을 통해서 ㄱ의 적절성을 추측할 수 있고, '음운은 한 언어 내에서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통해서 ㄷ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리의 길이처럼 다른 소리와 분명하게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는 설명을 참조해서 ㄹ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ㄴ.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차이므로,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ㄹ. 음운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이므로 각 언어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4.

해설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중 첨가를 이해한다.

'한여름'은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여'의 'ㅇ'은 첫소리로 올 때 소릿값이 없으므로 음운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발음을 하면 [녀]가 되므로 음운인 'ㄴ'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막히면'의 [마키면]은 'ㄱ'과 'ㅎ'이 합쳐져서 'ㅋ'이 되었으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③ '물난리'의 [물랄리]는 두 개의 'ㄴ'이 모두 'ㄹ'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④ '벗나무'의 [

해설

번나무]는 'ㅈ'이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⑤ '넙어서'의 [너어서]는 원래 있던 음운인 'ㅎ'이 사라졌으므로 탈락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13-27-60-211

25.

해설

비분절 음운의 기능 확인

<보기>는 문말 억양의 차이(하강조, 상승조, 평탄조)에 따라 발화의 의미가 달라짐을 설명한 것이다. 문말 억양은 소리의 길이 등과 함께 비분절 음운의 한 종류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음성 언어로 실현될 때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 중 하나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문자 언어가 지닌 한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③ 말하는 상황의 차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⑤ 문맥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억양에 따른 의미 차이를 설명하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6.

해설

[출제의도] 겹받침의 발음 이해하기

'ㄹ'의 경우 [ㄹ]으로 발음하므로 '닭고'는 [담 : 꼬]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넙고'는 [넙꼬], ③ '뽕고'는 [뽕꼬], ④ '옹고'는 [옹꼬], ⑤ '흙고'는 [흙꼬]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13-27-30-212

27.

해설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중 동화 현상을 이해한다.

'난리'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로 받침 'ㄴ'이 'ㄹ'의 앞에서 'ㄹ'로 변한다. 그러므로 [날리]가 적절한 발음이다.

[오답풀이] ① 'ㄹ'의 앞에 있는 받침 'ㅂ'이 'ㄹ'으로 변해서 [방물]로 발음된다. ② 끝소리 'ㅌ'이 모음 'ㅣ'와 만나서 'ㅊ'으로 변하므로 [바치]로 발음된다. ④ 끝소리 'ㄷ'이 모음 'ㅣ'와 만나서 'ㅈ'으로 변하므로 [팜바지]로 발음된다. ⑤ 'ㄴ'의 앞에 있는 받침 'ㄱ'이 'ㅇ'으로 변해서 [멍는다]로 발음된다.

문항코드 : 14-27-30-211

28.

해설

단어의 분류 기준 이해

해설

'둘 이상의 직접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기준을 통해 단일어인 '고추'와 복합어인 '책가방'과 '멋쟁이'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단어의 개념이다. '고추, 책가방, 멋쟁이' 모두 단어에 해당한다.
- ② 직접 구성 요소의 어느 하나가 의존적인 것은 파생어를 의미한다. '멋쟁이'만 해당한다.
- ④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를 의미한다.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책가방'만 해당한다.
- ⑤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종속 합성어를 의미한다. '책을 넣는 가방'이라는 의미의 '책가방'만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9.

해설

음운 변동의 양상 판단

'ㅎ' 탈락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일어나므로 어간 '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인 '-아'가 결합한 ㉞는 'ㅎ'이 탈락된 [조 : 아지긴]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㉟는 'ㅎ'이 '여전하-'의 일부이므로 원음대로 [여전한]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㉞는 [열락]으로 발음한다. 'ㄴ'과 'ㄹ'이 만나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 '유음화'이다.
- ② ㉞에서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고, ㉟에서는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된다(자음 축약). ㉟에서는 '오다'의 어간 '오'와 어미 '-아서'의 '아'가 '와'로 축약되었다(모음 축약).
- ③ ㉞는 'ㄴ'을 첨가하여 [지반닐]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법에 부합하지만, ㉟의 경우에는 [피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반모음 'ㅇ'을 첨가해서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 ④ ㉞와 ㉟는 받침의 '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ㅈ'이 된소리인 'ㅃ'으로 발음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0.

해설

단어의 구성 요소 분석

'보네'에 사용된 '-네'는 어미로서 굴절 접사에 해당하지만, '꽃을'에 쓰인 '을'은 어미가 아니라 조사이다. 조사는 앞의 말에 붙여 쓰긴 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깎'과 '-개'는 어근 '빚-'과 '뒹-'의 뒤에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들고 있으므로 접미사이다.
- ③ '-이'는 파생 접사이고 '-어라'는 굴절 접사이다.
- ④ '짓-'은 어근의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고 있으므로 접두사이다.
- ⑤ '-치-'는 파생 접사이고 '-는'은 굴절 접사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1.

해설

어근, 어간, 어미의 이해와 적용

어간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요소이며, 어미는 변하는 요소이다. '짓밟고, 짓밟으니, 짓밟아서' 등과 같이 '짓밟-'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어간임을 알 수 있다. '-았-'은 어미이다. 반면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어간 '짓밟-'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밟-'이 어근임을 알 수 있다. '짓-'은 접사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2.

해설

(라)의 ㄱ은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잡히다'는 '잡'의 'ㅂ'과 '히'의 'ㅎ'이 만나 'ㅃ'으로 축약된 예이며, '줄고'는 '줄'의 'ㅎ'과 '고'의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예이다. 즉 음운 축약이 일어난 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음운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의 '할고'이다. '할고'는 [할꼬]로 발음되는데, 이는 겹받침 'ㄹㄹ'이 'ㄹ'로 발음되고, 이에 따라 뒤의 '고'가 된소리로 발음된 것이다.

- ① '착하다'는 [차카다]로 발음된다.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었다.
- ② '놓고'는 [노코]로 발음된다.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예이다.
- ③ '달히다'는 '달'의 'ㄷ'과 '히'의 'ㅎ'이 축약되어 [다티다]가 되지만,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다티다]가 [다치다]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따라서 '달히다'도 (라)의 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운 축약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 ⑤ '답답하다'는 [답따파다]로 발음된다. 여기서 '파'의 'ㅍ'은 '답'의 'ㅂ'과 '하'의 'ㅎ'이 축약된 것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3.

해설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 방법 이해하기

'군소리'는 '소리'라는 어근에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인 '군-'이 결합한 파생어이나, '군밤'은 '군(구운)'과 '밤'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말이므로 합성어이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맨-'이 어근인 '주먹'과 결합하였으므로 파생어이다. ② '날짐승'은 '날다'와 '짐승'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말이므로 합성어이다. ④ '돌다리'는 '돌'과 '다리'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고, '집안'은 '집'과 '안'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감나무'는 '감'과 '나무'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고, '나무꾼'은 '나무'라는 어근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문항코드 : 13-27-30-215

34.

해설

복수 표현에 대한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ㄹ의 '여기들 잠자코 있어라.'에서 '들'은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해설

수행하고 있다. 즉 '너희들 여기 잠자코 있어라.'에서 '너희들'이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대신 '여기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장소를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인 '여기'에 '들'이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에 장소를 지시하는 대명사에는 '들'이 결합하지 못한다. 이는 '여기들이 삼각산이다.'라는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 있었다.'에서 '사람'은 광장에 있는 개별 대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들'이 '사람' 뒤에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에서 '사람'은 개별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집단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들'이 '사람'에 결합하지 못한다.
- ② '셋'과 '명' 뒤에 '들'이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물'은 개체로 나누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 뒤에는 '들'이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생략된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물' 뒤에 '들'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 ⑤ '너'에는 '들'이 결합할 수 없으나, '너희'에는 결합하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5.

해설

[출제의도] 단어의 계층 구조 이해하기

이 문항은 합성어의 파생에서 단어의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①은 '글+ 짓기'로, '짓기'는 다시 '짓(-다)+ 기'로 분석되므로 '말다툼'과 단어의 계층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문항코드 : 13-27-90-212

36.

해설

음소의 의미와 기능 이해

'바다'와 '가방'에서 /ㅂ/은 각각 [p]와 [b]로 실현되므로 각각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그러나 <보기>에서 환경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나는 두 음성은 하나의 음소로 묶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으므로 하나의 음소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개'와 '새'는 /ㄱ/과 /ㅌ/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 ③ '가마'와 '가사'에서 /ㅁ/과 /ㅌ/으로 인해 뜻이 구별되므로 각각 별개의 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밭[pab]'에서 [p]와 [b]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으나 뜻을 구별하지는 못한다.
- ⑤ '가구[kagu]'의 [k]와 [g]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나는 음성으로, 두 음성은 하나의 음소로 묶는 것이 원칙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7.

해설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인접한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

해설

고 발음이 바뀐 것은 '꽃', '부엌'으로 ㉠에 해당하며, 자음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 변한 것은 '곡물', '속는다', '말며느리'로 ㉡에 해당한다.

- ① ㉠의 '굳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의 '꽃'은 ㉠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의 '속는다', '말며느리'는 ㉡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의 '굳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의 '굳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의 '굳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의 '부엌'은 ㉠의 사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항코드 : 13-28-10-211

38.

해설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는 목소리를 고르고 있었다.'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르다2의 1의 용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두 단어 모두 유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이다. ③ 고르다2는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성분이 주어 이외에도 필요한 서술어이다. ⑤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동사이다.

문항코드 : 14-27-30-212

39.

해설

합성어와 파생어의 이해와 적용

'뺨꼭새'는 부사 '뺨꼭'이 명사 '새' 앞에 와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꺽쇠'는 동사의 어간 '꺽-'이 명사 '쇠' 앞에 와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② '집집이'는 명사 '집'과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집집'이 접사 '-이' 앞에 와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④ '딸랑이'는 부사 '딸랑'이 접사 '-이' 앞에 와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⑤ '어린이'는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린'이 명사 '아이' 앞에 와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0.

해설

단어의 형성과 품사 분류의 적절성 판단

'있었어'에서 '있-'은 어간, '-었-'은 선어말 어미, '-어'는 어미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뒹굴음질'은 '뒹굴음'이라는 합성어에 다시 접사 '-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고, '가시덤불'은 '가시'와 '덤불'이라는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④ '-었-'과 '-았-'은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앞의 어간이 지닌 성질(양성, 음성)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1.

해설

품사 분류의 적절성 판단

<보기>의 설명에서, '관형사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등 일반적인 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체언과 구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격 조사가 결합하는 '셋'은 체언이고, 격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한'은 관형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③ '문장을 꾸며 주는 말이 부사'라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부사는 '는'이나 '도'와 같은 보조사가 쉽게 결합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용언의 부사형과 구별하곤 한다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2.

해설

활용 시 제약을 받는 동사의 파악

'돌아보며'의 기본형인 '돌아보다'는 '돌아보고, 돌아보니, 돌아보아, 돌아보는, 돌아본다' 등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미 변화가 자유로운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더불어'의 기본형인 '더불어'는 '~과/와 더불어' 형태로만 활용된다.
- ② '덩달아'의 기본형인 '덩달다'는 '실속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좇아서 하다.'라는 의미이다. 주로 '덩달아', '덩달아서' 형태로 활용된다.
- ③ '뒹어놓고'의 기본형인 '뒹어놓다'는 '푹고 그림이나 형편 따위를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다. 주로 '뒹어놓고' 형태로 활용된다.
- ⑤ '눈여겨'의 기본형인 '눈여기다'는 '주의 깊게 보다.'의 의미이다. 주로 '눈여겨'의 형태로 활용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3.

해설

파생 명사와 동사의 명사형 이해

'좋은 꿈'과 '자주 꿈'의 '꿈'은 모두 '꾸-+-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의 '꿈'은 동사 어간에 접사가 붙은 파생 명사이고, '자주 꿈'의 '꿈'은 동사 '꾸다'의 명사형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4.

해설

파생 명사의 구분

ㄱ의 '믿음'과 ㄷ의 '걸음'은 명사, ㄴ의 '죽음'과 ㄹ의 '읽'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접사인 '-(으)ㅁ'은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파생 명사가 되므로, ㄱ의 '믿음'과 ㄷ의 '걸음'이 접사인 '-음'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5.

해설

접두사 사용의 적절성 판단

'숫놈'이 아니라 '수놈'이다. 접두사 '숫-'을 취하는 단어는 양, 염소, 쥐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염소'는 접두사 '암-'을 취할 때, 형태의 변화가 없다.
- ② '꿩'은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로 '수-'를 취한다.
- ③ '나사'는 접두사로 '수-'와 '암-'을 취한다.
- ⑤ '닭'은 암컷을 이르는 접두사를 취할 때, '암닭'의 형태가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6.

해설

안은문장의 이해

ㄱ은 '소리도 없다.'가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 ㄴ은 '내가 읽다.'가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 ㄷ은 '승찬이가 학교에 간다.'가 인용절로 안겨 있는 문장, ㄹ은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다.'가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7.

해설

이어진문장의 이해

공통된 겹문장의 짜임새를 찾는 문제로 제시된 속담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루어진 겹문장에 해당한다. 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8.

해설

[출제의도] 부사어의 종류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와 같은 문장 접속 부사는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②의 '이상하게'는 '오늘은 운이 좋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오답풀이] ①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수식하므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③ '높이'는 '뛰어올랐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고 '매우'는 '높이'를 수식하므로 '매우'는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④ '새'는 명사 '차'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아주'는 '새'를 수식하므로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⑤ '다행히'는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문항코드 : 14-27-30-213

49.

해설

해설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부사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 '친구처럼'과 ㉡ '점점'을 문장 내의 위치를 바꾸어 '보름달은 친구처럼 친한 다정하다.', '밝은 점점 보름달이 다가온다.'로 쓰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정말'은 형용사 '아름답다'를, '점점'은 동사 '다가오다'를 수식한다. ③ '대체'는 생략을 해도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친구에게'는 생략이 되면 '보여주다'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생략할 수 없다. ④ '대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반면에 '꼭'은 서술어인 '보여 주고 싶다'만 수식한다. ⑤ '친구에게'와 '꼭'은 모두 부사어이다.

문항코드 : 13-27-60-212

50.

해설

문장의 종류 이해
 청자를 전제로 하며, 청자만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의 형식은 명령문에 해당한다. 명령문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아라'를 활용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의문문으로, 청자를 전제하며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의 형식에 해당한다.
 ② 청유문으로, 청자를 전제로 하며 화자와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의 형식에 해당한다.
 ④ 감탄문으로, 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문장의 형식에 해당한다.
 ⑤ 평서문으로, 청자를 전제하지만 요구가 없는 문장의 형식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1.

해설

문장 구조의 제약 조건 파악
 '-면서'는 앞에 오는 절이 아닌 뒤에 오는 절의 주어를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들어서고 있자'는 어색하지만, '들어서자'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자'가 진행상과의 결합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읽느라고 밤을 새워라.'는 어색하지만,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느라고'가 명령형 문장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콩을 사러 시장에 있다.'는 어색하지만, '콩을 사러 시장에 갔다.'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러'가 서술어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떠났으려고'는 어색하지만, '떠나려고'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으)려고'가 시제 선어말 어미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2.

해설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이해

해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는 학교에서 철수를 못 만났다.'라는 문장은 '나'가 학교에서 철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능력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나'가 학교에서 철수를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다는 의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많이'를 '매우'로, '어서'를 '빨리'로 대체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 되었다.
 ③ '외삼촌'을 '엄마의 남동생'으로 풀어 쓴 예이다.
 ④, ⑤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능동문과 피동문은 유의문이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3.

해설

문장의 종류와 구조 파악
 ㄱ은 '눈이 많이 왔다.'와 '길이 매우 미끄럽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친구가 빌려 주었다.'라는 문장이 '책'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서(관형절) 안긴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 ㄱ과 ㄴ은 모두 평서문이다.
 ② ㄱ과 ㄴ은 모두 겹문장이다.
 ④ ㄱ과 ㄴ에는 모두 주어가 두 번 나타난다. ㄴ의 경우에는 관형절('친구가 빌려 준')이 나타난다.
 ⑤ ㄱ과 ㄴ에는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ㄴ의 '빌려'는 '빌다'의 피동 표현이 아니라 '빌리다'의 활용형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4.

해설

[출제의도] 관형절 이해하기
 '다섯'은 수관형사로서 단위성 의존명사 '개'를 꾸며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만, '동전 다섯'은 문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동전 다섯'을 관형절로 진술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① '유명한'은 용언인 '유명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말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 '관광지'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그녀의'는 체언인 '그녀'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말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 '화단'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산'은 용언인 '사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말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 '꽃'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어느'와 '그'는 관형격 조사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말로서 품사는 관형사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각각 명사 '지역', '사실'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문항코드 : 13-28-10-214

55.

해설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 '-겠-'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한다.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다. <처럼 '-겠-'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었-'과 결합되면 추측의 의미만 나타낸다.
 [오답풀이] ④ '그 목표를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며 말하는 사람과 주어인 '제가'가 일치한다. ⑤ '어린애도 알겠다. / 할 수 있겠다.'의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문항코드 : 14-27-30-215

56.

해설

(나)의 ≡은 '비가 오지 않아서'가 원인이 되어 '모를 내지 못한' 것이므로 '비가 오지 않아서'는 '모를 내지 못했다'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은 ④의 '철수는 영화를 좋아하나, 영화는 준우를 좋아한다.'이다. 이 문장은 '철수는 영화를 좋아한다.'와 '영화는 준우를 좋아한다.' 두 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문장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7.

해설

[출제의도] 주어의 특징 탐구하기
 'ㄱ'의 주어는 '새가'이며, '≡'에서 안은 문장의 주어는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고 안긴 문장의 주어는 '우리 반'이다. 주격 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쓰인다. 따라서 주격 조사의 형태가 앞말과 관계가 없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ㄱ'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으나, 'ㄷ'에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③ 'ㄱ'에는 주어인 '새가'가 사용되었으나, 'ㄷ'에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명령문에는 주어가 흔히 생략된다. ④ 'ㄴ'의 주어인 '영희는'은 문장의 제일 뒤에, 'ㄷ'의 주어인 '우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다. ⑤ 'ㄷ'의 주어인 '우리'는 한 단어이지만, '≡'의 주어인 '우리 반이 승리했음'은 절의 형식이다.

문항코드 : 13-27-30-213

58.

해설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탐구한다.
 ㄴ의 주동문 '그가 집에 가다'에서 '집에 가'는 동작의 주체는 '그'이며, 이 문장의 사동문인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에서도 '집에 가'는 동작의 주체는 '그'이므로 동작의 주체는 동일하다.
 [오답풀이] ① ㄱ~ㄷ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ㄱ에서는 '철수', ㄴ에서는 '영희', ㄷ에서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② ㄱ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ㄴ과 ㄷ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바뀌었다. ③ '먹다'에 '-시'

해설

키다'를 붙인 형태인 '먹게 시키다'는 성립할 수 없다. ⑤ '가다'에 사동 접사를 붙인 형태는 성립할 수 없다.

문항코드 : 13-27-60-214

59.

해설

[출제의도] 시간 표현 이해하기
 발화시가 (d)일 때 기준시는 (c)이고 가까운 미래의 추측에 해당하는 '-겠-'이 쓰였으므로 사건시는 ④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문항코드 : 13-27-90-213

60.

해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특징과 의미 확인
 ㄴ의 '가려진'은 '가리다'의 어간 '가리-' 뒤에 보조 동사인 '지다'가 '-어지다'의 형태로 결합한 것이고('어'는 어미), ≡의 '신게 하다'는 '신다'의 어간 '신-'에 어미 '-게'가 결합하고 동사인 '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ㄱ에 사용된 '-기-'는 피동 표현을 만들고 있고, ㄷ에 사용된 '-기-'는 사동 표현을 만들고 있다.
 ④ '신기다'는 단형 사동으로서 직접적, 간접적 의미로 모두 해석할 수 있지만 '신게 하다'는 장형 사동으로서 간접적 의미로만 해석된다.
 ⑤ '쫓기다'는 '쫓다'의 피동형이고,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형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1.

해설

피동 표현 사용의 이유 분석
 능동 표현을 사용한 (가)에서는 '동생'이라는 필통을 얻은 주체가 드러나 있지만, 피동 표현을 사용한 (나)에서는 필통을 얻은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능동 표현의 주체를 숨길 수 있음을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④, ⑤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해당하지만, (가)와 (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③ 피동 표현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2.

해설

[출제의도] 단어 간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서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해설

뺨으며 몸을 곧게 한다.'이고, '앉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엷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몸무게를 실어 다른 물건 위에 몸을 올려놓거나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다리나 발 위에 올려 놓다.'이다. ⑤의 '서다'와 '앉다'는 이러한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어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③의 '서다'와 '앉다'는 모두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의 '서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으나, '앉다'는 '새나 곤충 따위가 일정한 곳에 내려 자기 몸을 다른 물건 위에 놓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의 '서다'는 주변적 의미로, '앉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항코드 : 13-27-30-211

63.

해설

(다)의 ~의 '길다 : 짧다'는 정도나 등급의 측면에서 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예이다.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④의 '밝다 : 어둡다'이다. 이 두 어휘는 밝기의 정도 측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① '출발 : 도착'은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② '참 : 거짓'은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③ '삶 : 죽음'도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⑤ '올라 가다 : 내려가다'는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4.

해설

[출제의도] 중의적 표현 이해하기
 ⑤의 경우,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비교 대상이 '그녀'와 '나'일 경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정도에서 그녀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해석된다. 비교 대상이 '나'와 '컴퓨터 게임'일 경우,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정도보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해석된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비교 대상이 '그'와 '그녀'이다. ② 비교 대상이 '그녀'와 '나'이다. ③ 비교 대상이 '웃'과 '책'이다. ④ 비교 대상이 '그'와 '나'이다.

문항코드 : 13-27-30-214

65.

해설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이해하기
 '쓰다'와 '달다'는 맛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의관계이고, <보기>의 '입다'와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쓰다'와 '달다'는 '입다'의 하위어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문항코드 : 13-27-90-214

66.

해설

중의문과 모호문에 대한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는 '적당히'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모호문이 된 경우이다. 물음의 형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의미가 모호해진 경우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조사 '과'에 의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다. ㉠는 '그가 형과 함께 들어서 동생을 찾아다녔다.'는 의미와 '그가 형도 찾으러 다니고 동생도 찾으러 다녔다.'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확실히'가 수식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 대답이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대답을 안 한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는 '조금만'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진 경우이다.
 ⑤ ㉢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속제를 했는지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되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7.

해설

부정 표현의 적용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못'과 '못하다'인데, 이 중 단형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못'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못 만났다.'라는 부정문으로 바꿀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8.

해설

반의어의 종류와 특징 이해
 <보기>에서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철저히 양분하는 반의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살다'와 '죽다' 역시 개념적 영역이 철저히 양분되며, 동시에 긍정하거나 동시에 부정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⑤ '가다'와 '오다', '오른쪽'과 '왼쪽'은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하여 맞선 방향으로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반의어이다.
 ②, ④ '길다'와 '짧다', '쉽다'와 '어렵다'는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의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9.

해설

이유의 추리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어."라는 남학생의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하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이 아직 다 오지는 않았다.'이다. 현재 친구들이 몇 명은 와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어.'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0.

해설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적용하기
 '영업용'은 '영업+용'으로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뒤 단어의 첫소리가 'ㅇ'이므로 'ㄴ'이 첨가된다. 그리고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앞 단어의 받침소리 'ㅂ'이 'ㅃ'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문항코드 : 13-27-90-311

71.

해설

표준 발음법에 따른 올바른 발음 파악
 '닭 앞'에 '는'이 들어갈 때 '닭'의 대표음인 [닥]으로 발음한 뒤 '앞'에 이어져 [다가페]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② '값있는'은 뒤에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앞말의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야 한다.
 ③ '웃웃'은 '웃'의 대표음 [울]으로 발음된 뒤 '웃'에 이어진다.
 ④ '멋있는'은 원래 [머닌는]이 되어야 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머신타]는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여 맞는 발음이다.
 ⑤ '산기슭에는'은 '산기슭' 뒤에 조사가 왔기 때문에 받침 발음이 사라지지 않게 '에는'에 이어진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2.

해설

표준 발음법의 기준 파악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것이 표준 발음법의 첫째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 서울말에서도 실제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3.

해설

현실에서 고착된 관용적 발음 파악
 '멋있다'는 [머신타]라는 발음이 합리적인데도, 사람들이 [머신타]라고 발음하며,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관용으로 처리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4.

해설

해설

북한 언어의 특징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판단
 <보기>에서는 북한의 언어가 '어법 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어휘의 차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관용적 표현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까박을 붙이다'는 어법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북한에서만 만들어져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의 '두음 법칙에 따른 발음이나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라는 설명에 부합하는 반응이다.
 ③ '노크, 커튼'이라는 외래어 대신 '손기척, 창가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므로, <보기>에서 말한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 외래어를 다듬은 말에 해당한다.
 ④ '주말농장'이나 '신용카드'는 남한의 제도와 생활이 반영되어 쓰이는 말이고, '만가동, 량권'은 북한의 제도와 생활이 반영되어 만들어져 쓰이는 말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5.

해설

표준 발음의 이해
 ㄱ~ㄹ은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모두 발음상 사잇소리가 있고, 뜻의 분화가 고려되고 있으며, 앞뒤 음운 중 최소한 하나가 유성음이기 때문이다. ㄱ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될 때 'ㄴ'이 덧붙는 경우, ㄴ, ㄹ은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 ㄹ은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에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6.

해설

표준 발음법에 따른 올바른 발음 파악
 '맛없네요'는 우선 제15항에 의거하여 '맛'의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고, 제10항에 의거하여 '없네요'를 [업네요]로 발음하게 된다. 그래서 [마덤펀네요]가 되는데, 다시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ㄴ' 소리 앞에서 'ㅂ'은 [ㅃ]으로 발음되므로 결국 [마덤펀네요]로 발음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맑다'는 제11항에 따른다면 [막따]로 발음해야 한다.
 ② '깨끗이'는 그대로 연음하여 [깨끄시]로 발음해야 한다.
 ③ '모래밭에서'는 '-에서'가 조사인 관계로 [모래바테서]로 발음해야 한다.
 ⑤ '옛가락'은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옛까락]으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7.

해설

표준 발음법에 따른 올바른 발음 파악
 '삿일'은 '삿'과 '일'의 합성어이다. 뒤에 오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삿'을 대표음인 [삭]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 후 제29항에서 알 수 있듯이 'ㄴ' 첨가가 일어나게 되어, [삭닐]이 된다. 그런데 뒤의 'ㄴ'으로 인해

해설

앞에 있던 받침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하게 되어, [상닐]로 최종 발음이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8.

해설

표준 발음법의 적용 과정에 대한 탐구
'발이랑'이 발음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8항에 따라 대표음 받침으로 실현이 된 후, 제29항에 따라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18항의 비음화를 반영하면 [반니랑]이라는 최종 발음이 된다. '미달이'가 발음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17항의 구개음화 규칙을 적용시키면 [미다지]로 발음하게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9.

해설

[출제의도] 된소리되기 규정을 이해한다.
② '갈등'은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26항 '한자어에서 'ㄹ'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조항에 따라 [갈똥]으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덥개'는 제23항에 따라 [덥개]로 발음하고, ③ '낯설다'는 제23항에 따라 [낯썰다]로 발음하며, ④ '머금다'는 제24항에 해당되므로 [머금따]로 발음한다. ⑤ '남기다'는 제24항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남기다]로 발음한다.

문항코드 : 13-27-60-311

80.

해설

'ㄴ'의 적절한 발음 탐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모음 'ㄴ'의 발음이다. 제5항에 따르면 원칙상으로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발음의 편의성을 위하여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웨]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발음해야 한다.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강의의'는 [강의의/강의에/강이의/강이에]로, '의의'는 [의의/의이]로, '민주주의의'는 [민주주의의/민주주의에/민주주의의/민주주의에]로, '의지'는 [의지]로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1.

해설

해설

[출제의도] 규정에 맞게 발음하기
제13항 규정에 의하면 '동녘에서'는 [동녀케서]로 발음해야 한다. '동녘'의 'ㄴ'은 출발침이고, '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정답 ①

문항코드 : 13-27-30-315

82.

해설

모음 체계의 이해와 적용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고,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이다.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은 전설 모음이다. 원순 모음, 고모음, 전설 모음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귀'이다. '귀'가 사용된 단어는 '휘파람'이다.
오답 피하기
① 'ㅡ'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고, 'ㅞ'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② 'ㅜ'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고, 'ㅣ'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다.
④ 'ㅓ'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고, 'ㅞ'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⑤ 'ㅓ'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3.

해설

제7항의 '2'에 따르면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짧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⑤의 '밟히다'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발피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 첫소리가 짧게 발음되어야 한다. [발 : 피다]와 같이 어간 첫소리를 길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① 제6항에 따르면 단어의 첫음절에서 긴소리가 나므로 [말 : 싸움]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밤 [粟]'은 긴소리가 나는 것이 원칙이나 첫음절이 아닌 둘째 음절에 'ㅁ'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6항에 의거 [군밤]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 ③ 제7항의 '1'에 따르면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면 짧게 발음한다. '신다'의 어간 '신-'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시너]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 ④ '많다'의 'ㅁ-'은 원래 긴소리이지만,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으니'가 결합했기 때문에 제7항에 의거해 [마느니]라고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4.

해설

표준 발음법의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의하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해설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절약'은 앞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났으며, 뒤 음절이 '야'로 시작하고 있지만, 'ㄴ'이 첨가되지 않는다. '절약'은 두 한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지만, 단일어처럼 사용되는 말로 제29항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맨입'은 접두사 '맨'과 어근 '입'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ㄴ' 소리를 첨가하여 [맨닙]으로 발음한다.
- ③ '색연필'은 '색'과 '연필'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여'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ㄴ' 소리를 첨가하여 [생년필]로 발음한다.
- ④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여'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ㄴ' 소리를 첨가하여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 ⑤ '출이불'은 접두사 '출'과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접두사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ㄴ' 소리를 첨가하여 [춘니불]로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5.

해설

'들일'에서 '들일'은 '들'과 '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제29항에 따르면 합성어에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ㄴ'을 첨가하여 [닐]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들일'은 [들닐]이 되는데, 제20항에 의하면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들일'은 최종적으로 [들닐]이 아니라 [들릴]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들일'의 표준 발음은 [들리레]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6.

해설

안은문장의 성격 탐구
ㄴ의 밑줄 친 부분의 주어는 '쥐뿔'이다. 따라서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한 것이나 안은문장의 주어인 '그'와 같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ㄱ, ㄴ, ㄷ의 밑줄 친 부분들은 문장 속의 안긴문장으로 각각 서술절, 부사절, 관형절이라고 한다.
- ② ㄱ은 서술절로 서술어, ㄴ은 부사절로 부사어, ㄷ은 관형절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토끼는 귀가 길다.'라는 문장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ㄱ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 ⑤ ㄷ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이마에 흐르는 주체는 땀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7.

해설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공간과 관련이 깊다.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이냐에 따라 그 내용과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의 경우, '헌혈의 필요성'에 관한 발표를 하는 상황이

해설

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 따라 표현 방법이 정해진 것이다. (나)는 교내 신문에 투고되는 맥락이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가)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8.

해설

발화의 주제문 작성

<보기>에 제시된 발화들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소금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문을 작성할 때는 '소금', '유용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9.

해설

[출제의도] 담화의 기능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요.'라는 평서문을 사용해 상대방인 엄마에게 '제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요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문항코드 : 14-27-30-214

90.

해설

사용역과 매체의 구별

(가)는 학교에서 대면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장면이고, (나)는 가정에서 전화로 언니와 동생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가)는 '사제, 학교', (나)는 '자매, 가정'이 사용역이 되고, (가)는 '말(구어)', (나)는 '말(구어), 전화'가 전달 매체가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1.

해설

(가)는 '전화'를 매체로 삼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 중간에 화자와 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매체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 작용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2.

해설

[출제의도] 담화 상황 이해하기

"아침은 먹었니?"라고 말하는 아주머니의 말은 아침 인사에 해당하

해설

는 표현으로 아주머니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문항코드 : 13-27-90-215

93.

해설

[출제의도]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 이해하기
 (가)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문어 담화로서 (나)에 비해 기록성과 보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① (나)의 경우 '택시 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돈가방을 경찰서에 신고했다'라는 정보만 제공되는 것에 비해 (가)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습득(본질)한 금액, 날짜, 시간, 경찰서에 신고한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나)에서 '대단하네, 그 사람'은 문장의 순서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하다.'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나)에서 '근데', '난' 등의 줄임말은 일상적 구어 담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나)는 일상적인 대화이자 구어 담화의 사례인데,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은 가방의 주인이) 사례금을 줬는데도 안 받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문어 담화에 비해 구어 담화에서는 조사나 주어 등의 문법 요소가 자주 생략됨을 알 수 있다.

문항코드 : 13-28-10-215

94.

해설

발화의 기능 이해
 '빨리 가지 못하겠니?'라는 것은 맥락상 '요청'이나 '명령'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질문'이나 '질책'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5.

해설

담화의 이해와 분석
 응집성은 지시, 접속, 생략, 반복, 대응 표현 등에 의해 형성된다. ㉠은 '볼펜'이라는 어휘를 반복하여 응집성을 갖추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은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은 볼펜의 구입을 권유하는 '호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의도적으로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의 경우 맥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 경우 그러한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비대면성과 실시간성을 특성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 통신 언어에 사용되는 발화로 ㉠, ㉡과 같은 인쇄 매체의 발화와는 관련이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6.

해설

방송과 신문 기사의 차이점
 방송 기사는 '음성'이라는 '청각' 매체를 사용하고 있고, 신문 기사는 제목을 통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 기사는 방송 기사와 달리 '~하다.'로 끝나는 문장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7.

해설

상황에 맞는 발화의 생성
 <보기>에서 빨래는 아까 빨랫줄에 널어서 거의 습기가 남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도 습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진행'을 나타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을 같이 표현해야 하므로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인 '-네'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발화는 ④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말라 가'에 현재 진행의 의미가 나타나 있으나 그런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② '말랐네'에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인 '-네'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의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말랐을걸'은 현재 진행의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고, 화자의 추측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을걸'을 사용하였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말라 갈걸'은 현재 진행의 의미가 나타나 있으나, 화자의 추측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걸'을 사용하였기에 적절하지 않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7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48	②	49	②	50	③	51	①	52	②
53	③	54	④	55	③	56	④	57	②
58	④	59	④	60	③	61	①	62	⑤
63	④	64	⑤	65	④	66	④		
67	나는 그를 못 만났다.								
68	③	69	④	70	③	71	①		
72	현대 서울말의 발음, 국어의 전통성, 합리성								
73	멋있다[머똥따/머싯따]								
74	⑤								
75	ㄱ: [콩녘], ㄴ: [길까], ㄷ: [밤깎], ㄹ: [초짚]								
76	④	77	④	78	①	79	②	80	④
81	①	82	③	83	⑤	84	②	85	④
86	④	87	⑤						
88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유용하다.								
89	④								
90	(1) 학교 (2) 자매 (3) 전화								
91	①	92	④	93	⑤				
94	명령, 질책								
95	①								
96	(1) 청각 (2) 음성 (3) 제목 (4) ~하다.								
97	④								

